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 행 인 박 필 수
편 집 인 겸 발 행 인 손 주 영
편 집 장 송 훈
외대신문사 (☎직962—7128교965—7001)
외 대 학 보 (☎직965—7048교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85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한국경제신문사 이 규 행

제491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8년 5월 17일 (화요일)

깨어나라, 5월 넋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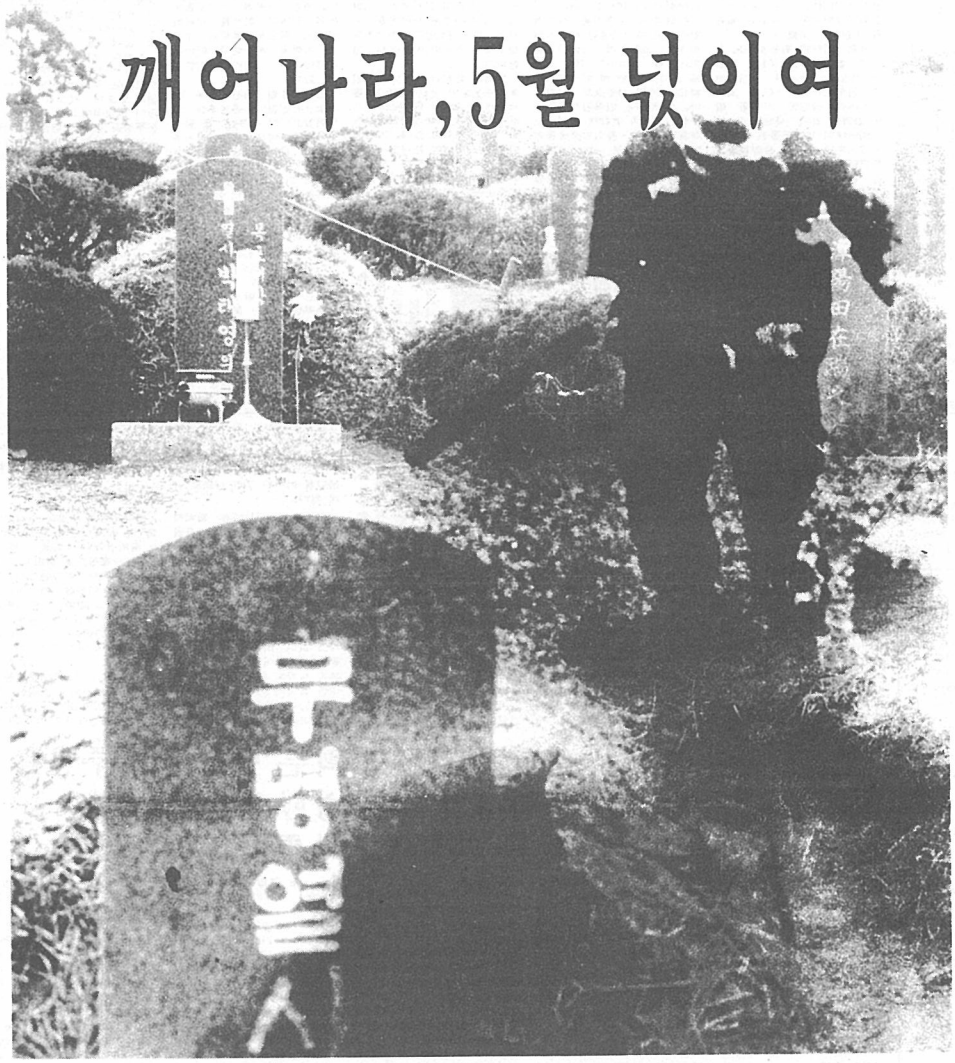


사진 : 윤덕주기자

오월 그날을 다시 세우자

—오월 광주항쟁 8주년을 맞이하여

조 태 일 〈시인〉

함께 한몸 한마음이던 오월이 왔다.
아직 마르지 않은 피옷을 입고
피몸 피무덤으로 오월 그날이 왔다.
무언 망신이겠는가 가자 가자.
광주로 광주로.

온몸 피눈물이던 그날을 보듬고
지상의 모든 형제 흐느끼는구나.
하나뿐인 목숨 이 땅에 바치며
총장로를 금남로를 파도치네.
군부독재 타도하자, 민주정부 수립하자
화정동에서 광천동에서 계림동에서
지산동에서 학동에서 양동에서
나라 다시 일으키는 어린이며
학생이며 품팔이며
아저씨며 아주머니며 할아버지며 할머니들이
부활하여 외치는구나.
가자 가자 부활의 땅으로.

답답하다고 한만도 동백로 꿈틀대는구나.
답답하다고 삼라만상이 일어서는구나.
푸른 하늘도 급히 내려앉는구나.
오월은 다시 오고, 그날은 다시 오고
무등산은 다시 눈애를 엉대했다더라
방월동의 무덤들도 눈애를 엉대했다더라.

결단의 때가 왔다.
우리들 청춘의 땅,
우리들 희망의 땅,
세계의 보람의 땅,
늙지않는 빛고을
항쟁의 땅, 민주의 땅, 통일의 땅
오오, 영원한 고향인 광주를 두고

눈감은채 잠들 때가 아니다.
오년이고 팔년이고 십년이고 백년이고
가슴치며 땅을 치며 세울 일이다.
그날의 함성 다시 세워
그날의 발자국 소리 다시 깨워
그날의 죽음 다시 세워
그날의 무덤 다시 깨워
오월 그날을 명명백백에 세울 일이다.

누가 이 일을 막을소냐
누가 이 길을 막을소냐
문화를 총검을 미워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민주를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우리 오늘 그때 그사람들 되어
파도가 되자.
오월 그날 다시 세워 겨레의 되자
한라에서 백두까지 뻗치는 바다가 되자.

5·18항쟁 특집12면주요기사

1면 : 화보, 추도시
2면 : 논설면—「재야운동의 새로운 모색」, 사설
3면 : 보도기사
4면 : 학술시리즈(6)—「민족해방운동의 대상과 동력」
5면 : 사회면—「정치보복수단…악법은 철폐되어야한다」
6면 : 특집1면—「5월광주항쟁을 계기로는 한국군부의 성격」
7면 : 특집2면—「자주화운동과 반핵운동의 올바른 실천」
8면 : 특집3면—좌담 「민중주체의 오월문학」
9면 : 문화시리즈(5)—「북한의 문화정책과 문화혁명」
10면 : 기획시리즈(5)—「제2캠퍼스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몇가지 대안」
11면 : 기획면—「설치되어야할, 의료공제회」
12면 : 문화면—「민족형식에 민족혼을 담은 노래」

진리·평화·창조

세계를 호흡하는 개성있는 명문 종합대학입니다.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열려있는 대학입니다.

24개 외국어분야와 인문, 사회·자연과학계열 및 사범계분야의 학과를 설치하고 있읍니다.

부전공제도와 복수전공제도를 확충, 모든 학생이 2개의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국·공립, 사립 대학교와 교육 교류협정을 맺어 학문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읍니다.

외대는 국제화에 앞장선
개성있는 명문대학입니다

외대의 2만4천여 동문들은
5대양6대주에서 선진조국의 역군으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읍니다

● 어문학분야
영어과·불어과·독일어과·노어과·서반아어과·이태리어과·포루투갈어과·화란어과·스웨덴어과·폴란드어과·루마니아어과·체코어과·항가리어과·유고어과·중국어과·일본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아랍어과·태국어과·베트남어과·인도어과·터어키어과·이란어과·스와힐리어과

● 인문,사회과학분야
철학과·사학과·언어학과·정치외교학과·행정학과·신문방송학과·법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경영정보학과

● 사범계분야
영어교육과·불어교육과·독일어교육과·한국어교육과

● 자연과학분야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전자 계산학과

● 대학원과정
대학원·무역대학원·통역대학원·교육대학원·경영정보대학원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재야운동의 새로운 모색

—최근 진행되는 재야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주 창 식
〈정치 평론가〉

Ⅰ. 들어가는말

70년대 유신독재체제 이래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매판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비제도권 양심세력」을 통칭, 재야라고 불러왔고 이들은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구심역할을 해왔다。그리고 이러한 재야의 역할이 절정에 달한것이 87년 6월의 민주화대투쟁이었다。

그러나 재야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로 사분오열되었고 대통령선거이후 그 일부가 제도정치권으로 또는 기층민중운동으로 진출해 나감으로서 그 실체가 모호해지게 된못한 모습이다。

여기에서는 그간 진행된 재야운동의 성과와 한계,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모색과 그 입환으로서의 새로운 연대를논의에 대해 미흡하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Ⅱ. 7·80년대의 재야운동

70년대 재야운동은 지식인을 비롯한 중간층 명망가 중심의 운동이었다고 할수있다。즉 종교인, 문화인, 교수, 언론인, 법조인등과 제도권진출이 봉쇄된 정치인등의 민주인사들이 유신파쇼통치에 반대하고 인권적이고 양심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주로 국민운동기구를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등을 통한 대국민여론화작업이상의 깊이있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조차도 철저히 봉쇄화되고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정통성을 타격하고 고립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80년대의 재야운동은 80년5·17이후의 폭압적 상황을틈고 투쟁력을 회복시키며 학생운동을 필두로한 사회운동 전반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주체적인 대응으로 70년 재야민주화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87년6월항쟁은 80년대 재야운동의 성과가 가장 높은 형태로 발현된 시기였다。그러나 6월항쟁이후 재야는 대통령선거에서의 무력함, 민통의 공동화 현상등으로 인한 자기한계의 노출과 함께 새로운 질서의 개편을 요구받고 있다。

80년대 재야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띄게된다。

첫째, 이념성에 있어서 단순히 인권적이거나 양심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로 표방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과학적이고 선명하게 변화되어 간 점을 들수 있다。즉 광주민중항쟁을 경험하면서 민족자주화문제의 전면적제기와 모순해결의 주체로서의 민중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수용하면서 70년대의(재야) 민주화운동에서 (재야) 민족민주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둘째, 개인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단체중심의 운동으로 전환되어 간다。70년대 처럼 명망가들의 대부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단체의 고문이나 지도위원등의 형태로 각 단체에 소속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됨에 따라 개인의 명망성이 단순히 선각자적모습으로 발현되는것이 아니라 소속된 조직의 대중적 신뢰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발휘되어 간다。

세째, 각 부문·영역에 따른 분화·발전의 가속화를들수 있다。즉 단순히 민주화운동을 표방하는 막연한 조직이 아니라 종교, 여성, 문화, 교사등 각 영역의 운동이 분화되어 자기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나타나, 무수한부문 조직들의 공개적인 틀이 형성되어 갔다。

네째, 기층민중운동이 공개적인 틀을 형성하면서 재야민주화운동의 큰 부분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즉 공개적인민주화운동은 이제 중간층 혹은 지식인 중심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층민중운동도 이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며 발전해온 재야운동은 매시기의 정세에 조응하며 다종다양한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게 되는 데 이러한 노력은 두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그 하나는 민족민주운동의 구심으로서의 연합체 건설 노력으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결성으로 나타나게되고 범국민운동연합 건설노력이「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으로 결실을 맺는다 (국민운동본부는 민통련, 기독교, 가톨릭, 불교, 여성, 문화, 노동, 농민, 제도정치권을 모두 포괄한 해방이후 최대의 연합조직) 이러한 80년대 재야운동의 성과가 가장 높은 형태로 발현된 시기가 87년 6월항쟁이었으며 재야운동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6월항쟁은 동시에 80년대 재야운동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이기도 했다。6월항쟁이후 선거혁명의 환상에 따른 7·8·9월 노동자대투쟁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국면의 주도권상실, 대의직가 명확하지 못하여 갖고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一을 지적하면서 목적의식적변혁의지를 담보하는 강령과 높은 수준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율성을 갖춰야 하고 상층명망가 중심의 조직구성을극복하고 노동·농민·청년학생등 전투력을 확보하는 질높은 연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새로운민운연건설론」과「민통련혁신개조론」의 결합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 투쟁의 집행력이 미약하다는 것등의 문제제기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재야운동 재편논의가 전체민족민주운동의 질서재건 문제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서민족민주운동의 구심적 연합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요구로서 새로운 민중운동연합건설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기존의 민통련이 지녔던 문제점—성장하는 기층민중운동의 성과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층민중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조가되지못하며, 대통령선거투쟁에서의전술채택오류가 드러내듯이 권력장치는 협의체적 성격의 공동투쟁위원회에서 부터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자는 이것은 언제까지나 낮은 수준의 연대에만 머무르게 되어 보다 강고한 투쟁은 이루어 질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연합적 수준의 투쟁체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직 위상설정과 건설방도에 대한 견해한 견해의 차이는 일견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개의 흐름이 대립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공동투쟁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의 상이한입장이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실천투쟁을 통해서 검증되어야한다는점에 일치하고 있다는데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운동에서의 제반논쟁이 추상적 수준에서의 것에서 점차 구체적 문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건설문제로까지 발전하였음을나타내는 긍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재야운동의 통합— 궁극적으로는 통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이루어져 나갈것이다。

Ⅳ. 맺음말에 대신하여

재야운동의 새로운 위상정립 요구는 체제비판적 양심세력에서 체제변혁의 지향을 지니는 민족민주운동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재야라는 모호한 이름을 벗어버릴것을 요구받고 있다。우리사회의 변혁운동의 특수성에 의해 만들어진 재야운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새틀게 규정되어야할 것이다。

즉 현하 우리민족민주운동의 수준이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노동운동·농민운동·청년학생운동의 3대민중

새로운 연합체 건설 노력은 당면 공동투쟁틀 형성과 유리되지 않게 병행해야

자기조직의 이해실현 위한 종파성 극복이 문제

틀형선거 투쟁에서의 무력한 대응과 분열은 민통련의 균열과 국민운동본부의 공동화로 나타나고 재야운동은 다시 점서개편을 요구받는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Ⅲ. 재야 운동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모색

6월항쟁이후의 과정에서 제기된 통일된 정치적 이념의 부재,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층명망가 주도의 운동방식과 조직구조상의 비민주성, 수많은 부문조직이 존재하지만 대중과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기층민중운동의지가 결합되지 못하여 갖고 있는 한계점 등이 문제제기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재야운동 재편논의가 전체민족민주운동의 질서재건 문제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서민족민주운동의 구심적 연합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요구로서 새로운 민중운동연합건설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기존의 민통련이 지녔던 문제점—성장하는 기층민중운동의 성과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층민중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조가되지못하며, 대통령선거투쟁에서의전술채택오류가 드러내듯이 권력장치는 협의체적 성격의 공동투쟁위원회에서 부터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자는 이것은 언제까지나 낮은 수준의 연대에만 머무르게 되어 보다 강고한 투쟁은 이루어 질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연합적 수준의 투쟁체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직 위상설정과 건설방도에 대한 견해한 견해의 차이는 일견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두개의 흐름이 대립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공동투쟁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의 상이한입장이 구체적이고 대중적인 실천투쟁을 통해서 검증되어야한다는점에 일치하고 있다는데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운동에서의 제반논쟁이 추상적 수준에서의

사론

것에서 점차 구체적 문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건설문제로까지 발전하였음을나타내는 긍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재야운동의 통합— 궁극적으로는 통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이루어져 나갈것이다。

Ⅳ. 맺음말에 대신하여

재야운동의 새로운 위상정립 요구는 체제비판적 양심세력에서 체제변혁의 지향을 지니는 민족민주운동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재야라는 모호한 이름을 벗어버릴것을 요구받고 있다。우리사회의 변혁운동의 특수성에 의해 만들어진 재야운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새틀게 규정되어야할 것이다。

즉 현하 우리민족민주운동의 수준이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노동운동·농민운동·청년학생운동의 3대민중

사설

광주 항쟁 8주기를 맞으며

—학살자 처벌대상에 성역없다

오늘로 5·18광주항쟁이 꼭 8년째를 맞는다。

누차 다짐했던바, 또다시 그날의 「광주」를 되새기는 우리의 자세는 단순히 연례행사로서의 의미에 그칠 수가 없다。민중사적으로 볼때 80년의 광주는 동학혁명이래 1백여년을 면면히 흘러온 민중의 한(恨) 이 응축된 대명사가 되었고, 운동사적으로도 민족자주와 민주화 실현을 열원하는 동력으로서 시대적 획을 긋는 일대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최근 정가 (政街) 에서도 13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광주항쟁에 관련해 여야의 전초전이 드세어지고 있다。민정당은 이 현안을 「광주사태 재조사」라고 표현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조사다운 조사를 얼마나 했다고 재조사라고 명명하는지부터가 의아스럽다。

머준다나 전직대통령은 조사,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여당측의 주장이「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헌정질서의 붕괴」「국가의 명예」를 고려한 발상이라 하니 한층 터무니없게 들릴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광주항쟁 재조사가되려면 관련자의 색출과 처벌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배제한 여당측의 재조사안(案)은 오히려「국가명예」회복의 불가능을 초래할 것이며「헌정질서 붕괴」로 파급될 것이 명백하다。

8년의 세월을 합구당하며 지내온 지금, 광주문제의 재고(再考)는 여당측이 말하는 바처럼 「문제의 불필요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는 8년전 광주항쟁을 진압한 자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는 역(逆) 시대적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는 의미인 것이다。

이달말 개원국회이후 시행되리라 보이는 「광주문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엄마만큼의 협동반경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으로 축소된 논의에서는 어떠한 성과물도 얻을수 없을 것이다。

분명 80년 광주의 일주일을 기념비적인 추억거리로 역사의 한페이지에 접어들수 만은 없다。또한 시민들이 무장할수 밖에 없었던 사태가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비역사적관점도 청산해야 한다。

올해도 우리는 광주항쟁 8주기를 어김없이 정부의 준전시 태세인 갑호 비상령하에서 맞이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바로 잡고자했던 망월동 민주화 외지가 「관련자 처벌보다는 억울한 사람 명예회복에서 그치자」는 집권여당의 아전인수격 제의보다 「5월광주의 단결되지 않는 제승」을 원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미션 화법

더 큰 자유

▲친구보게。

오늘은 자네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러나 쉽게 지나치는 단어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네。우리가 기장 많이 말하고 들어왔던 더 단어중에 하나인 「자유(自由)」에 대한 것일세。

글쎄, 자넨 자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걸로 아네。

그렇네, 우리는 자유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왔어도 실상 그것이 무엇이던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던게 사실이네。친구, 대체 「자유」가 뭐던가? 난 오늘 자네에게 권지로나마 최근 느끼게된 「자유」에 대한 나의 확신을 이야기하고자 하네。

▲자네도 경험하셨을 테지만 요즘 나는 여당측의 주장이「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헌정질서의 붕괴」「국가의 명예」를 고려한 발상이라 하니 한층 터무니없게 들릴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광주항쟁 재조사가되려면 관련자의 색출과 처벌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과정을 배제한 여당측의 재조사안(案)은 오히려「국가명예」회복의 불가능을 초래할 것이며「헌정질서 붕괴」로 파급될 것이 명백하다。

8년의 세월을 합구당하며 지내온 지금, 광주문제의 재고(再考)는 여당측이 말하는 바처럼 「문제의 불필요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는 8년전 광주항쟁을 진압한 자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는 역(逆) 시대적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하는 의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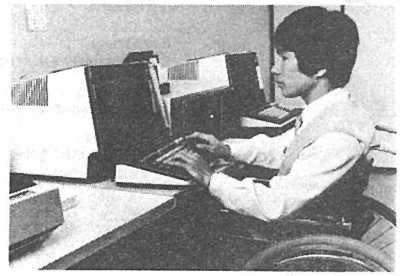
이달말 개원국회이후 시행되리라 보이는 「광주문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엄마만큼의 협동반경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으로 축소된 논의에서는 어떠한 성과물도 얻을수 없을 것이다。

분명 80년 광주의 일주일을 기념비적인 추억거리로 역사의 한페이지에 접어들수 만은 없다。또한 시민들이 무장할수 밖에 없었던 사태가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비역사적관점도 청산해야 한다。

올해도 우리는 광주항쟁 8주기를 어김없이 정부의 준전시 태세인 갑호 비상령하에서 맞이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역사를 바로 잡고자했던 망월동 민주화 외지가 「관련자 처벌보다는 억울한 사람 명예회복에서 그치자」는 집권여당의 아전인수격 제의보다 「5월광주의 단결되지 않는 제승」을 원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 ④

일의 보람으로 소중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마흔 두 명에 한명, 전국에 약 100만여명 — 우리 주위에는 대전시 인구와 맞먹는 장애자가 있읍니다. '81년 "세계 장애자의 해"를 계기로 이들의 사회 참여와 제한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장애자에 대한 취업의 문은 아직도 좁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편견 때문이 아닙니까요?

인천시 북구 십정동에 위치한 「성린 직업재활원」— 1971년에 세워져 직업 재활시설로는 국내 최초인 이곳에는 현재 60여명의 신체장애 청소년들이 직업기초교육, 전문교육, 현지실습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읍니다. 원장을 비롯한 전문교사들,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으로 취업하기까지 서로 의지하며 오늘의 아픔을 이겨나갑니다. 선배중의 한분, J씨는 소아마비의 몸으로 낮에는 이곳에서 알선한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해 지금은 어엿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읍니다. 가끔씩 성린직업재활원을 찾는 J씨, "내 아픔을 알기에 진정 남의 아픔을 덜어 드릴 수 있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라는 말을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어떠한 편견도, 모멸도, 동정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체의 장애를 일의 보람으로 이겨가려는 사람들 — 그러나, 이들의 취업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장애자의 직업재활 상담을 하고 있는 장애자 재활협회에는 한달 20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취업은 절반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장애자 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자 고용 문제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장애자 –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 이름입니다. 이들도 스스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現代가 전액 출연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은 성린직업재활원을 포함한 많은 신체장애자 직업재활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읍니다.

우리의 現代 세계의 現代
現代

광주 민중항쟁 기념주간 선포

서울,「애국외대 총궐기대회」및 노래극등 개최

용인, 초청강연회·심포지움·비디오상영 예정

총학생회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5월16일 (월) 부터 20일 (금) 까지를 「5·18광주민중항쟁 계승주간」으로 설정하고 이에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기간동안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2층복도에서는 광주항쟁사진전시회와 시화전이 야간강좌 총학생회주최토요릴리며 시청각교육원앞에서는 경찰의 시위진압용 무기가 전시된다.

용인캠퍼스의경우 문리학관과 어문학관 로비, 학생회관전시실에서「광주학살사진전시회」와「희운법열사 사진전」이 열리며 어문학관 식당에서는 오전11시부터 광주항쟁관련 비디오가 매일 상영된다.

17일 (화) 부터의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 (화) =서울캠퍼스는 오후2시 삼민광장에서 총학생회문화부주최로 「금희의 오월」마당극공연이 있으며 이어서 「학살 원흉처단을 위한 애국외대 총 궐기 촉구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용인캠퍼스는 오후1시30분 어문학관앞 해방광장에서 「광주민중항쟁계승 실천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8일 (수) =서울캠퍼스에서는 오후3시부터 민속악 놀이반의 마당극공연이 있은후 「광주학살 원흉처단을 위한 애국외대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용인캠퍼스에서는 12시 어문학관앞 해방광장에서 스와일리어과 주최로 「5·18 광주항쟁」에 대한 심포지움이 진행된다.

▲19일(목)=서울캠퍼스에서는 오후1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치뤄지는 「고 조성만 열사 영결식」에 참석한다. 용인캠퍼스에서는 오후1시30분 해방광장에서 노래모임「해후리」의 노래극이 공연된다.

▲20일(금)=서울캠퍼스 서양어대 주최의 광주항쟁을 주제로 한 시국이 오후 3시 소강당에서 개최되고 용인캠퍼스에서는 서양어문대 학생회 주최 윤용교수(고대 신방과교수·영어과 59학번) 초청강연회가 「광주 민중학살과 관제언론」이란 제목하에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5·10 교육민주화 선언」기념식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장"등 주장

사범대학생회는 지난5월10일 (화) 12시 사범대 현관앞에서 「5·10교육민주화 2주년 기념식」을 갖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장 ▲교육자치제실시 ▲자주적 교원단체설립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범대 학생회장 조정근군 (영교4) 은 성명서를 통해 「사범대는 교육의 민주화와 인간화, 민족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민주화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20여명의 학생들은 연세대에서 개최된 「5·10교육민주화 2주년기념식및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회 협의회 대동제」에 참석했다.

서문대 서어과 제2회 MUSA정기공연

서양어문대 서반아어과 주최 제2회 MUSA정기공연이 5월19일 (목), 21일(토) 용인캠퍼스 대강당과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각각 오후2시, 6시에 개최된다.

이번 제2회 MUSA정기공연에는 빅토르 루이스 이리아르떼 (Victor Ruiz Iriarte)원작 「어느 여름날의 편지」가 무대에 오르게 된다.

서울, 선교연합회 초청강연회 개최

서울캠퍼스 선교연합회에서는 5월25일(수)오후 4시30분 대학원 211호에서 「세계 선교동향」이라는 주제로 선교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 연사로는 애서나워(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수가 초청되며 애서나워교수는 제3세계및 공산권등의 선교에 관해 강연할 예정이다.

용인, 소운동장 스탠드기공

1천5백명수용규모, 8월완공예정

어문학관옆 소운동장 스탠드기공식이 지난5월10일 (화) 오후3시 석일균용인캠퍼스부총장을 비롯한 각부처 관계자, 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스탠드는 1천5백명 수용규모에 지면2m 높이로 6단으로 건립되며 공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영사실 장소이동

시청각교육원 308호에 있던 영사실이 같은 건물 202호로 옮겨져 14일 (토) 부터 시설이동 작업에 들어갔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18일 (수) 부터 영화상영이 시작된다.

대학원 신방과 시험거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논문지도, 심사시 외부교수 참여를 요구하며 지난 5월7일 (토) 실시된 종합시험을 거부하고 11일 (수) 부터는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신방과 대학원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논문지도, 심사와 종합시험 출제, 평가는 그 과목을 직접가르쳤거나 그 과목을 전공한 교수에 의해 출제되어야 하는데 그 분야의 문외한인 본과 교수가 관여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리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신방과 대학원생 15명중 8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용인총학생회

상징 깃발 디자인 공모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를 상징할 수 있는 깃발제작을 위해 디자인을 오는 5월 18일 (수) 까지 공모한다.

용인총학, 지입제 운수업자 제시

학교측「제2차방안」수용, 18일부터 세부논의 진행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의「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방안」을 학교측에서 전면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늦어도 5월18일(수)까지는 새업자와의 계약을 끝내고 노선배치등 세부논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5월2일(월)「현 교통상황의 문제점및 해결방안」에대한 학교측대안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 지난 9일(월) 제2차 정기학생총회 및 과회장회의를 통해 지입제운수업자 선정과 계약체결에 학생대표 참석,최단시일내의 버스운행을 골자로한 제2차방안을 학교측에 제시한바 있다.

교통문제특별위원장 박종본군 (사회·경제3) 은 「학교측안인 지입제버스의 새차구입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새차구입시 최소한 2개월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며 그럴경우 1학기종강으로 말미암아 논의가 중단돼 이번 학생회안이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2차방안」제시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행일시를 앞당길수 있는 방안으로는 「일정정도의 재정적기반과 버스를 확보하고있는 관광회사등을 선정해회사소유의 차량을 새차구입때까지운행하면 필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총학생회의「제2차 방안」에 대해 학교측은 수용표명을 했으며, 5월12일(목) 에는 총학생회에서 선정한 운수업자를 학교측에 소개, 이자리에서 학교측은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등 버스운행에 따른 세부계획안을 17일 (화) 까지 학교측에 제시해줄것을 요구, 약속받았다.

'망월동 묘역 4백여명 참배

◇5월14일 (토) 광주망월동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본교생들.

서울·용인캠퍼스학생 4백여명은 지난14일(토)광주 망월동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추도식은 고(故)이한열군의 부모를 비롯한 20여명의 유가족이 자리를 같이한 가운데 「광주민중동지회」 회원 김태찬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이날 양찬모 유가족협의회부회장은 「망월동묘지는 광주인만의 것이 아닌,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모든 영령들의 안식처」라고 말하고 「80년의 광주를 치유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주범 처단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노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망월동묘지에서 추도식을 마친 학생들은 오후 9시20분경 전남대학령관에서 김태찬씨와의 일문일답과 광주항쟁관련 슬라이드를 관람했다.

한편, 이날 묘역참배를 위해 서울캠퍼스에서 예약한 7대의 전세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일정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는데 버스전세예약을 맡았던 학생처관계자는 지난 12일(목) 예비군 수송차량을 계약했다가 다음날인 13일 (금) 관광버스 7대를 다시계약했다고 선명했다. 그러나 학생처측은 버스회사측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금환불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않고 이후 대처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않은채 미진한대도로 일관, 학생대표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본교생3명, 박준병사무실 점거

"광주학살 주범처단"주장, 10여분만에 연행

지난5월12일 (목) 본교「청년학생 결사대」소속 한주현군(야간·일어3) 등 3명이 국회의원 박준병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10여분만에 경찰에 의해 집단구타, 연행당했다.

「광주학살 5적처단을 위한 애국외대 청년학생 결사대」소속인 한주현, 장홍중(동양·중국어3), 박상근군 (서양·영어2) 은 이날 오전8시50분경 충북옥천에 소재한 민정당 사무총장 박준병 사무실을 점거, 유리창을 깨뜨리고 「광주학살원흉 박준병을 처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진압에나선 경찰은 소방차와 백골단 1백여명을 동원해 9시5분경 곤봉으로 무차별 구타하며 연행해 갔다.

한편, 이날 오후3시 삼민광장에서는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결사대 투쟁 보고대회」와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학살원흉처단을 위한 특별위원회」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총학생회장 함철성군 (법·법학4) 은 「우리의 결을 떠나간 세 학우의 뜻을 이어받아 학살원흉 전두환, 노태우처단 투쟁에 벌써 일어서자」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장 임재형군 (정과·신방4)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피빛 오월에 학살의 주범 노태우일당을 처단하지못하면 한반도에는 어둠만이 계속될 것이라며 말하고「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되는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4시30분경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광주학살 진상규명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5월항쟁 계승하여 미국놈들 처단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반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발족

"조국통일을 위한 학생대중의 투쟁조직으로"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서총연」) 발족식이 5월13일 (금) 오후3시 연세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본교생 1백여명을 포함한 서울지역 26개대학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 외장으로 선출된 오영식군 (고대 총학생회장) 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청년학도의 일상적 이해와 요구를 일관되게 수렴, 이를 실현시키며 민족의 진군을 가로막는 제반모순에 맞서 자주·민주·통일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나갈것」이라고 말하고 「항상적인 연대실천과 공동투쟁을 실현해나가며 이후 서학련과 전학련건설을 위해 선도적으로 입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교 결사대투쟁 및 민가협농성 보고, 부의장 중앙대 총학생회장 박일남군(졸리4)의 투쟁선언이 있은후 오후7시경 대동놀이등이 진행됐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서총연」은 지난해 결성된「서대협」의 조직한계를 극복하고 전체학생들의 대중조직을 결성하기위해 지난 4월10일(일)25개대학 총학생회장들이 고려대에서 가진 회의에서 「서대협」해체를 결의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이 「서총연 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 5월4일 (수), 5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규약, 시행세칙 작업과 의장단선출을 마쳐 이날 발족하게 된것이다.

「서총연」은 지난해 결성된 「서대협」의 조직한계를 극복하고 전체학생들의 대중조직을 결성하기위해 지난 4월10일(일)25개대학 총학생회장들이 고려대에서 가진 회의에서 「서대협」해체를 결의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 총학생회장단이 일한 방법인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주범 처단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노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망월동묘지에서 추도식을 마친 학생들은 오후 9시20분경 전남대학령관에서 김태찬씨와의 일문일답과 광주항쟁관련 슬라이드를 관람했다.

한편, 이날 묘역참배를 위해 서울캠퍼스에서 예약한 7대의 전세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일정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는데 버스전세예약을 맡았던 학생처관계자는 지난 12일(목) 예비군 수송차량을 계약했다가 다음날인 13일 (금) 관광버스 7대를 다시계약했다고 선명했다. 그러나 학생처측은 버스회사측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금환불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보이지않고 이후 대처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않은채 미진한대도로 일관, 학생대표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문대「구국체전」사회대「청년제」

인문과학대 「구국체전」과 사회과학대 「청년제」가 인문대, 사회대학생회 공동주최로 5월13일 (금) 용인캠퍼스 대운동장및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축구, 배구, 농구등 9개종목으로 나뉘어 열린 이날 체육대회에서 우승은 경영경보학과, 준우승은 철학과가 차지하였다.

한줄소식

▲서울대생 투신
—한양의 밀알이 땅에떨어져…

▲민정당, 한겨레신문에 축하광고 실어
—보도지침만든게 누군데 이거참!

▲전국에 5·18감호비상
—꿀리는게 있는 모양이군

「삶」의 초월

▲흔히 삶의 진권의 획득을 위해 싸우며, 폐와은자는 기득권의 고수를 위해 이에 대항한다고들 한다.

그리고 폐와인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은 다분히 공격적이게 되며 폐와은 자는 방어적으로 변신할수 밖에 없다고들 한다. 때문에 폐와은 자들은 항상 폐와인 자들에게 잠재해있는 공격적인 힘을 무마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온갖수단과 방법들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가끔은 국회의 의석수도 조금씩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치부를 일정부분 들추어 내면서까지 마치 과거의 죄들과 깨끗히 결별한듯,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듯한 기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폐와은 자들이 항상 유화적이며 방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방어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안심하는 무방비상태의 폐와인 자들의 생존권을 그들이 필요할때면 언제든지 엄청난 제도적 특혜구조를 통해 자유자재로 유린하는,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들을 들춰내곤 한다.

80년 5월 반도담론의 「백주거리에서 자행된 학살의 역사는 이를 웅변해 주는 것이며, 그러한 생존권유린광경이 이땅 어느곳에선가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지않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수 없음이 바로 폐와인 자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 젊은이의 죽음의 소식을 또 접한다. 그 젊은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자유가 차가운 철장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기에, 자신의 배를 갈랐다.

그동안 수없이 사라졌던숱한 젊음들의 생명은 단순히 절기때문에 슬픈것만은 아니리라.

바로 이처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위해 자기 한몸기꺼이 내던졌음에 그리고젊은 생명들이 하나둘 사라져가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앞에 전개되고있기에 깊은하늘밑에서 살아가는 또다른 젊음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감당할수없는 아픔으로 밀려올수 밖에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삶이란 절대절명의 책임이고 권한이며 죽음은 이 책임과 권한을 초월하는 일이다. 초월은 항상 그 무엇도 범접하지 못할 위엄을 갖게되며 이는 곧 힘으로 발산된다. 또한 힘으로 발산되는 죽음의에 죽음을 불사하는 결연한 의지들은 우리에게 이와 동등한 힘을 부여한다.

바로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간직할때만이 「피를 먹고 자란다는 민주의 나무」는시들지 않는 싱싱함으로 항상 우리의 가슴을 채워줄 것이다.

<이성환>

복지위, 도서관 개선방안 제출

도서관 근무자 충원등 3개항

서울캠퍼스 복지위원회는 지난5월10일 (화)「도서관 개선방안」을 학교측에 제출했다.

이는 도서관 근무자부족으로 인해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학생증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제출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도서관 근무자 3인 (남자) 이상 충원▲월저한 학생증검사 ▲근무자 제복착용등이다.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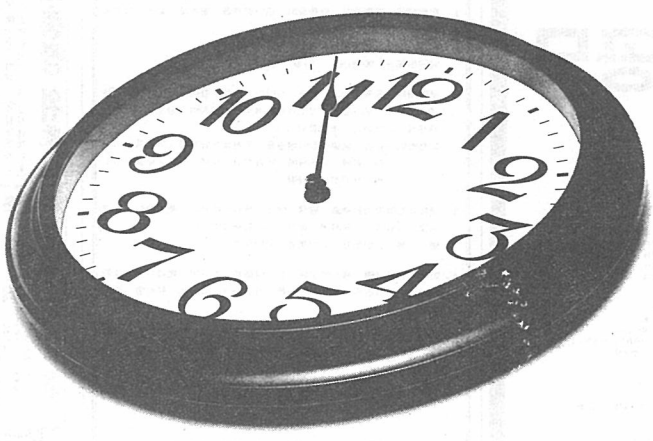
본보 490호(5월10일자)보도면(1면)우측 상단의 3단기사 「학살원흉처단 특위 발족식」 내용중 일부월자의 누락은 인쇄과정에서 삭제된 「노태우」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대학보

제5회「외대학술상」마감박두!

마감 : 5월31일(토)

"55분만 있읍니다"



쌍용의 김과장에게는
55분만 있읍니다.
그는 고객과의 약속을
언제나 5분 먼저
지키기 때문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우리네 사회생활———
언제부턴가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읍니다.

조그마한 틈새로부터
커다란 둑이 무너지듯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에서부터
불신의 벽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있는 기업을 가꾸어 가는
쌍용의 시계에는
언제나 55분만 있읍니다.

SSANG YONG 쌍용

민족해방 그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6>

김 진 석
<산업사회연구가>

Ⅰ. 서

12.16 대통령 선거와 4.26 총선은 한국 사회변혁운동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누가 적이며 누가 동지인가 하는 문제들을 판별이 아닌 실천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다。한 입장은 즐겨 이렇게 주장하였다。『현 시기의 주요타격방향은 자유주의 부르조아들이다。물론 타도대상은 군사파쇼와 독점자본가, 또 그를 지원하는 외세이지만 자유주의 부르조아(현실적으로는 민주,평민 보수야당) 가 대중에게 가지고 있는 혜게 모니를 정취해내고 그들을 무력화, 중립화시켜 변혁운동 세력이 대중 지도력을 장악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정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파도 현실적으로는 선거투쟁이 아닌 선거운동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그 반동으로 현실 정치에 초연(?)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임으로써, 누가 적이며 누가 동지인가, 특히 「아(我)」 내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진 계급, 계층,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다。

본 기획에서 이제까지 다루어진 한국사회의 성격, 한국사회변혁운동의성격과 임무에 관한 논의들을 기본전제로 하여,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에 관한 문제를 원론적으로 정리하고, 현단계 실천에서 나서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Ⅱ. 변혁운동의 대상과 동력

한국사회변혁운동에서 대상과 동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같이 규정될수있다。『그 시기, 그 사회에서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 억압하는 세력, 즉 반동적 착취계급과 제세력』이 변혁운동의 대상이며, 『당면 변혁에서, 자주성 실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계급, 계층, 집단들의 세력』이 동력인것이다。

한국 사회변혁운동에서 대상과 동력을 올게 설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혁운동이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점이며 한국 사회에 조성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회계급적 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립관계가 곧바로 대상과 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러했을 때, 신식민주의 외세, 매판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이 대상이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소자산계급, 애국적 민족자본가, 애국적 군인, 양심적 종교인들의 광범위한 세력이 변혁운동의 동력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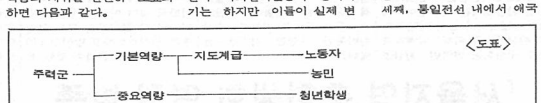
변혁운동의 대상을 파악하는데서 우선되어야 할것은 대상중에서도 주되는 대상과 부차적대상을 정확히 구별하는것이다。그래야만 주요 공격방향이 설정될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신식민주의적 외세가 주된 대상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대상을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한데, 한국에서 외세와 국내 매판세력 사이에는 본질적인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것이 아주 단순한 수직적 예속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지지, 보완, 이용하는 매우 복잡한 주종관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변혁운동 실천에 있어서는 이들 사이의 갈등, 알력, 대립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부차적이기는 하나 유의미성을 가진다。

다음 변혁운동의 동력에 대해 살펴보자。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동력이 몇몇 계급계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의 일반적성격에서 비롯되어 대단히 광범위한 계급, 계층, 집단을 포괄한다는 것, 즉 동력의 광범위함이다。

그러나 사대매판세력만을 제외한 다수의 민중이 동력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각 역량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다 다르며, 이것을 올게 파악, 실천에 구현하는 것은 변혁운동의 동력을 제대로 묶어세우고, 확실한 운동주체로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각 역량의 지위를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동력이란 그 계급, 계층의 생활확경 처지로 볼때, 당면 변혁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변혁의 완수를 위해끝까지, 가장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말하며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들수 있다。이들은 또 양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년학생을 기본동력은 아니지만 중요동력으로 놓는 이유는 그들이 변혁운동에서 사상의식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전투에서 헌신적으로 선봉대의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비록 계급적 처지는 다를 지라도 주력부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본동력과 중요동력이 합하여 주력군 (엄밀하게는 주력을 지도하는 당과 그 주위에 굳게 뭉친 대중역량을 가리킴) 이 되고, 나머지 계급, 계층, 세력들은 보조역량이라 할 수 있다。보조역량은 변혁수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절실함이나, 투쟁에 있어서의 철저성은 주력부대보다 떨어지며, 동요성을 보이기 쉬우나, 이들도 자주성을 유린, 억압당하는 세력으로서 당면변혁에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모두 다 동력이며, 통일전선이라는 형태로 확실히 묶어져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 지도계급이 되는 이유와 지도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에대해 살펴보자。

그 첫째는 노동계급이 기본동력이라는 점, 즉 변혁에 대해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라는 점에있고, 둘째는 노동자계급의 높은 단결력과 조직성, 창조력으로 인해 변혁운동 수행에서 가장 뛰어난 힘을 발휘한다는것이다。

세째는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가장 진보적인 계급으로서 미래사회를 대표한다는 점이다。이 세가지 이유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지도계급이며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Ⅲ. 동력을 진정한주체로 세우는 문제=통일 전선 결성의 문제

이렇듯이 광범위한 세력이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동력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실제 변혁운동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려면,하나의 점차적 역량으로 통일, 단결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지배세력의 주요한 지배방식인 분열정책을 깨뜨리고,계급·계층별로 또 전체 동력이 하나의 조직적 힘으로 단결해야 하고, 나가서 궁면적인 단결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지도와 대중이 결합하여 하나의 사상,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대중 역량을이렇게 묶어 세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동력들이 단일한 정치적 역량으로 통일·단결하는 주요한 방식이 바로 통일전선이다。1920년대 초, 서유럽에서의 혁명의 실패와 노동계급의 열세라는 상황에서 탄생된 통일전선 개념은 서유럽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에서는 하나의 전술로서 통용되기 시작했지만, 점차 그 중요성과 의의가 인식되면서 민중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시 그 권력의 모체 역할을 하는것으로까지 되었다。더우기 강대한 제국주의 세력을 상대로하며, 국내의 계급적모순보다는 민족전체적으로 받는 민족적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서 통일전선의 결성 여부는 민족운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사활적인 조건이라고 말해진다。

통일전선의 중요성은 다음세가지로 들수 있다。첫째, 주력군에 대한 적의 공격을 약화시키고, 적을 고립화시킴으로써 주력의 성장,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둘째,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세움으로써 주력못지않은 보조역량을 굳건히 건설하게 해준다。세째, 통일전선 속에서주력과 보조역량은 서로 정확히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일전선을 건설하고 운용하는데는 몇가지 원칙과 원리가 존재한다。첫째, 노농동맹을 굳건한 정치적·사회적 기초로 해야 한다。기본 역량이 튼튼히 서지 못하면 통일전선은 매우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둘째,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단결하되 동요하는 세력들에게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성, 동요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는「단결과 투쟁의 통일」이라는 원칙이다。

세째, 통일전선 내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Ⅳ. 몇가지 실천적 문제들

최고 형태의 혁명적 통일전선(반미구국통전) 은 아니지만 한국사회변혁운동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통전적 조직들을 건설,운영해 본경험을 가지고 있다。통일전선 사업을 짧하려면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올바로 비판, 흡수해내는것이 중요 것이다。

이 점에서는 현재 통전적 조직을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주요한 문제들—국본, 민통련 사업 등에 대한 평가, 새로운 민중운동연합 결성에 관한 논의, 학생운동 내에서 새로운 학간연대조직 건설의 문제, 4.26 총선이후 정국변화에 따른 3야당에 대한 변혁운동권의 기본 자세와 원칙 문제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공동 대책위원회」, 「국민운동본부」,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등의 여러 실천적 경험들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튼튼한 대중조직들간의 연대, 결합이라기 보다는 이름만 남아 있는 단체 간의, 또는 개별적인 인사들간의 결합 위주였다는 점이다。

물론 개별 인사나 단체들의 말라는 상징성과 명망성은 국대화시켜주지만,대중기반이 취약함으로 인해 실제 집행력과 투쟁력이 미약할수밖에 없었다。두번째, 큰 문제였던 것은 통일전선이 노농동맹, 노학연대등이 기본으로 구축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치노선에 많은 편향과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 애국적 전위조직의 지도성도 제대로 관철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이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표출된것은 바로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였다。6·29선언 이후 많은 상층부인사들이 떨어져나가면서 국민운동본부는 선거혁명론을 표방하여 실제 대중투쟁의 중심이 될 수 없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대중적 신망과 지지를 받고 있던 민통련도 후보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함으로써 그 권위가 실추되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투쟁의 구심을 건설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 중의 하나가 새로이「민중운동연합」을 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소위「재야운동권」이나 보수야당에 크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참신한 진보적인 인사와 대중투쟁조직들을 조직 건설의 새로운 구심을 삼아야 한다는 것, 또 지역별 부문별로 확실한 대중기반을 가진 기층, 민중운동 단체들이 먼저 결합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상층 인사와 중간층 운동 단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 등은 물론 모두 타당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할수 있다。또다시 기존 단체들을 망라하고 이름은 연합이지만 협의체적 성격으로 주려 나가려 하는것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진정으로 새로운 원칙에 충실하고 이름에 걸맞는 민중운동연합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요건이있다。

첫째, 대중적 실제로 노동운동 혹은 농민운동이 (세력적 체계가 아닌) 대중조직체계로 확실히 통일되어야 하고 이것을 기초로 노·학 연대, 혹은 농·학 연대가 구축될 때에만 지금 민중운동연합 논의가 당위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또다시 졸속하게 기존 단체들을 재편하는 것은 당면 투쟁 수행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통일전선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때는 결코 올바르지도 가능하지도 않은것이다。

서총련, 서전추 양자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학간연대조직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서대협의 기본적인 문제점은그것의 정치노선, 투쟁노선의 오류에있는 것이지 협의체라는 느슨한 조직형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따라서 정치적 지도의 내용성을 문제 삼아야지, 협의체라는 「그릇」을, 그것도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분명 학생운동의 튼튼한 연합체 조직을 신속히 결성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 통일전선 구축에 있어서도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그러나 학생운동의 학간연대조직이 진정한 연합체 조직이 되려면, 먼저 개별 학교가 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은 대중투쟁조직을 건설해야만 하고, 이것이 높은 규율성과 사상적 통일에 의해 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건설되는 학간 연대조직은 그것의 이름이, 또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그간의 오류를 필연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26총선 결과 탄생한 3대 보수야당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기존의 중요한 공동·연대투쟁에서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통일전선 사업의 주요방식은 적에 대한 공격, 비난과는 달리, 통일전선의 대상들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교양과 설복의 방식에 의거해야 한다。아직 변혁운동이 준비기의 첫시기에 머물러 있음을 볼때, 이들 원칙에 의거하여, 명실상부한 혁명적 통일전선을 건설하는 것은 변혁운동 초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Ⅴ. 결—통일·단결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단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야기 해왔다。적전분열이 패배의 기본원인이었던 것이 누구에게나 분명해진 선거 이후 이 단결의 문제는 더욱 절박한 것으로 되었다。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 『제헌의회 소집의 깃발아래 일치단결 투쟁하자』라는 주장도 있었고 『작은 차이를 확대시키지 말고 대통단결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운동발전의 현단계에서 일치단결이란 거의 불가능한 구호상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부분적, 일시적인 이익에 의한 이합집산을 구조적으로 보장(?) 하는 대동단결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우리는 완벽한 일치나 통일성을 추구하거나 또는, 명백한 차별성을 용인하기보다는 하나로 통일되어가며, 점점 통일의 수준이 높아지는 통일·단결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어떻게 통일·단결을 이룰것인가?

씨를주어, 종파주의를 극복하고 씨를을 발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면 씨를주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씨를주의의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씨를운동이이제까지 축적해온 모든 운동 경험까지 부정해 버리기도 하고 씨를의 해소를 기계적, 형식적인 씨를의 재편 혹은 운동인자들의 고립화로 귀결시키기도했다。

통일·단결은 두가지 조건 위에서, 그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첫째는 대중투쟁 속에서의 통일·단결이요, 대중투쟁을 위한 통일·단결이라는 것이다。활동가들의 끝없는 논의 속에서, 활동가들의 혜게모니를 위해서 추구되는 단결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둘째,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통일·단결의 구심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지도력이 있는 구심이 모든부문, 모든단위에 확실히 서서 그것으로 대중이 통일·단결을 이루어 나갈때, 전체 변혁운동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두번째 문제가 해결됨이 없이는 모든 통일·단결을 위한 호소는 무위로 돌아갈 뿐이다。

이 두가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거대한 힘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중들이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통일·단결되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등력이 명실상부한 변혁운동의 주체가 필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대중투쟁 속에서 대중으로부터 지도성을 인정받는 핵심으로 자기를 단련해 나가자。

어디에서든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력이 되지 말고,통병이 되었든,아무리 작은 일이 되었든 투쟁을 통해 대중이 단결될 수 있는 작은 응결핵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나갈 때 벌게만 보이는 전체 변혁운동의 통일·단결은 한걸음 더 가까와질 것이다。

변혁주체, 그 통일과 단결의 원칙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

대중투쟁을 위한 통일·단결의 구심체 시급

대중조직은 높은 규율성, 사상적 통일로 결합돼

대상상호간의 대립관계도 적절히 활용해야

글싣는 차례

1. 현대와 변혁이념〈상·하〉
2. 세계변혁과 민족해방운동
3. 현대제국주의와 한국사회
4. 민족해방운동의 성격과 임무
5. 민족해방운동의 대상과 동력
6. 민족해방운동의 전략전술체계
7. 민족해방운동발전사
8. 대중의식화론
9. 대중조직화론
10. 민족해방운동의 이행경로

국민은행
제1회
대학생논문 현상공모
창립4반세기를 맞이한 국민은행은
일반 대중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국내 최대 은행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금번 당행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리탐구와 더불어
급변하는 경영,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게 하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의견을 은행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패기와 역량있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공모논제(5개중 택일)
가. 국민주 대상 기업으로서의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나. 민영화를 앞둔 국민은행의 발전방향
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육성방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민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라.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경영전략
마. 경제발전을 위한 가계자축의 역할과 중대방안

3. 응모마감일
●1988년8월20일(토)

4. 당선작발표
●1988년9월20일(화)
(당선자 개별통지 및 당행 본점에 게시)

5. 상금
●대상 : 1편 300만원과 상패
●금상 : 3편이내 각100만원과 상패
●은상 : 5편이내 각 50만원과 상패
●동상 : 15편이내 각 10만원과 상패

6. 응모요령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내외
(10매내외의 요약문 첨부요)
●1인당 중모편수 및 2인이상 공동제출 제한없음
●제출처 : 당행 조사부(서울시명시 중구 남대문로2가9-1.
우편번호 100-703) 또는 각 영업점

7. 기타
●우수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채용시 우대함.
●논문제출시 전화번호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논문제출시 연락처는 명기하고, 본인 체학증명서 1통을 첨부.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치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행 조사부로 문의바람
(전화번호 771-40 교환 2294)

체 신 금 융 안 내

우체국에서는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을 가장소중하게 관리하고 또 알차게 늘려드리고 있읍니다

1. 저축예금 : 입출금이 자유롭고 단 하루를 맡겨도 높은 이자를 드리는 가계우대 예금입니다
대 상—개인 (실명 1인 1계좌)
예금한도—2,000만원 이율 연 6%

2. 우편대체 : 돈을 주고 받을 사람이 서로 만나 현금, 수표등을 주고 받을 필요없이 우편대체 계좌를 통하여 상호간의채권, 채무를 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방법—돈을 보낼사람이현금을 우편대체납입서 (우체국비치)와 함께 우체국에 납입하면 계좌가입자 (받을사람)의 계좌로 입금됨

3. 우체국정액자기앞수표 :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추심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우체국 정액 자기앞수표입니다
종 류—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4. 환매조건부채권 : 정기예금의 이용방법과 같으며 현금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높은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는 유리한 저축수단입니다
이 율—7~15일까지 연5.5%, 16~30일까지 연6.5%, 31~60일까지 연7.5%, 61~90일까지 연8.5%, 91일만기 연11%

※모든 통장 개설시 주민등록증및 인장지참

한국외국어대학교
우 체 국

육군 참모총장 위촉처
軍·행정병 모집
특전1·수도군단 후보자 (각군 17·1 자격증 소지자 26세 고졸이상 (해군은 졸업자) 중위특수·각군전형을 거쳐입대 (고졸학력 소지자는 군면제 병역 가능)
관인 인성 서예 차트 학원
차트·펜글씨·도안
수강자는 보자료 기본부터 재미있게 배우기 쉽고 빠른 시간에 실력향상 가능
수강료 일반부 중등부 1만원 고등부 1만원 (교재비 실비 별도)
732-5346
735-3771

미국 어학 연수

올 여름방학 동안에는 미국의 그 유명한 아메리칸 랭귀지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읍니다. 서부의 버클리 학교에도 동부의 필라델피아 학교에도 초급부터 제5급까지의 수준에 따라 들어갈수 있읍니다.

7월 18일에 떠나 8월 6일까지 2주일의 집중적인 영어공부, 1주일의 명승지 문화 여행을 하고 8월 6일에 귀국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학교에서는 선착순 35명, 버클리 학교에서는 선착순 50명만 뽑습니다. 여권과 비자의 수속은 (주) 세방 여행사에서 해 드립니다. 등록 절차 문의는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언어교육 연구원으로 해 주십시요.

재단법인 영어교육 부설
영어교육 연구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 호텔 뒤 737-4641 (대)

정치보복수단, 독재통치의 갈구리,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

최 수 철

〈정치평론가〉

Ⅰ.어느 양심수의 절규

『나는 한낱 「처분대상」이어난 한사람의 「인간」이다。웃음이있고, 눈물이있고, 사랑도 미움도 호기심도있는 연약한 사람이다。그럼과 시를 사랑하고 음악을 듣고싶어 삭막한 감방살이를 증오하고 서러워하는 한사람의 인간이다』

체포 당시 23세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치고서도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다시 9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되어 이제는 40세의 장년이 되어 버린 서경식씨。그의 절규는 이땅에서 법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든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이상으로 존중되고 허위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나라에서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수 있느냐고 순진하게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악법으로 투옥돼, 인간 이하의 고통을 받는 많은 양심수들의절규는 큰충격과 경악이 아닐수 없다。

거기에다 아직도 그 각종 악법의 올가미에 씌워져 뜨거운 가슴을 식이며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의 숫자가 1천여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번 놀랄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국회개원의 원만한 협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양심수를 추가로 석방한다는 논의가 오간 바 있었다。

그러나 양심수의 문제가 일시적인 정치협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였었다。양심수의 문제는 정치협상의 흥정물이 아니다。각종 악법이 존재해야만 하는 왜곡되고 뒤틀린 현실에서 비롯된 것인데 「국회개원을 위해 특별 석방을 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Ⅱ.제반악법의 전형에 대하여

이 나라의 감옥에 아직도 1천여명의 양심수들 처넣고있는 제반 악법들。

그것은 바로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으로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재한 법률들이다。대개가 1980년 이후 국보위에서 개정입법된 이들 법률의 독소적 조항을 살펴보는 작업은 단지 법률 자체에 대한 파악뿐 아니라 각 조항이 안고 있는 개념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허구에 가득찬 채, 독재통치의 「갈쿠리」로 역할해 왔는지와 그를 통해 악법의 전형을 알아 보는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억지악법, 집시법〉

집회및 시위에 대한 법률의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집단행동을 불법시하고 있으며, 이는 철저히 행위자체를 따질뿐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는 따지지도 않는 억지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다。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극히 모호한 법률목적에 대해 용어정의도도 없이 모든 반정부 집회및 시위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집시법 조항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이처럼 애매모호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에게 「전원일를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지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반공법을 80년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목적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를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그리고 「반국가」에 대해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데 이 2조가 지칭하는 대상은 물론 북한이다。

따라서 2조와 관련된 찬양, 고무, 동조등의 행위는바로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해야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어느 누가 북한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비인도적인 악법은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극히 불명확한 요소를 보안처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사회안전법이다。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사회안전법〉

그러나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의 그러한 독소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비인도적인 악법은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극히 불명확한 요소를 보안처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사회안전법이다。

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괴물과 같은 사회안전법에 희생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할 도리가없다。

사회안전법은 유신체제가 강한 저항으로 도전을 받으며 내부에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탄압통치를 노골화하던 1975년 7월 제정되었다。즉 석방되어 나가는 대규모의 반정부 인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체제유지적인 안전판으로서의 구체적 장치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사회안전법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반국가사범에 대해서 형집행 종료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보호관찰처분, 주거제한처분, 보안감호처분등 3종의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안처분이란 종래의 형법만으로 사회보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형법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외미에서 범죄의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국가가 행하는 범죄 예방처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처분의 사회안전법은 몇가지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이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즉 헌법 26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안전법은 보안처분제도를 신설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제반 적법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보안감호자는 영장없이 검사의 동행보고서에 의해 구금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은 물론 진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심사권도 없고 법관에 의한 공개재판도 받지 못한 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따라 구금생활을 해야한다。결국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감호처분은 많은 가운데 사회법익보호수단으로 본연의 제 위치를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중세유럽의 고문들은 없어져야하며, 현고있는 사람은 지금지금 지금 국가한 악법의 법률들은 제거돼야 한다。(사진은 미가톨릭의 양심수석방모습)

여기에서 형법의 올바른 위상을 생각하면서 형사정책의 방향성을 추론해 보자。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제, 통제함으로써 공동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형법은 그와같은 법규범 전체의 사회통제의 한 분과를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그러나 법규범이 통제해야 할 몫은 사회규범—종교, 도덕 윤리등—이 통제해야 할 몫과는 다르다。

즉 사회규범이 자기 통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만 투입되어야한다。

특히 형법은 법규범내에서도 사회적 제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형법은 가장 강한 국가적 제재에 속한다。즉 형법은 사회분쟁상황을 해결하기위하여 국가가보유하고있는 최후수단이기에 형법으로서도 해결되지않는 분쟁영역이 있다면 국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형법의 제재는 최초의 강력한 제재로 법률 개입 이전의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즉 정치보복의 성격을 띠어, 초강력의 법률이 먼저 나서서 강력한 제재를 하다보니 거기에는 근원적 대처가있을수없는 것이다。

Ⅳ.법인가, 정치보복수단인가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의 법률은 제정된지 지가 20여년이 넘었건만 처럼 대상자는 점점늘어나기만함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날의 형법은 과거와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식 앙갚음은 결코 아니다。법죄원인을 규명,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주임무이다。법죄의 원인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상당수 있는 한 더욱 그렇다。

그러나 20여년 이상 우리나라의 수많은 양심수의 경우, 그 근본원인이 정치적 비민주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 악법으로 일개인을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법이, 머이상 「법」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한 명백한 증거일 수 밖에없다。

또 형법은 최후수단성 때문에 사회 통제과정에서 다른 어느 규범보다 철저한 정당화조건을 구비해야 한다。즉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러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더 가치있는 법익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러나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 제 악법들이 보호해야할법익이오, 공공의 이익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없다。

경찰등 통치기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 법률의 보호법익은, 분명 정권의 안정과 유지라는 것은 위 법률로 희생되는 수많은 양심수들의 숫자와 건강한이념이웅변해주고있다。

법이 독재자의 성전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 되돌아와야 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법치국가에서 악법이란 말 자체가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진정한 법치국가에서는 악법이 이룬상 있을수 없다。헌법이 보장하고있는 인권의 수호기관은 헌법재판주의인데 이 헌법재판주의에 의한 위헌심사를 통하여 규범통제가 행해지는 한 악법이란 있을수 없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주의가 기능을 발휘하고, 사법권의 독립이 인정되는등 위헌법률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 장치마련과 실질적 제도보장은생각않고양심수추가석방이라니。

죄형 전단주의적 악법하에서 중세 유폐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악법의 희생자는 이제 정말 없어져야 하고, 그 지긋지긋한 악법들은 사라져야 한다。법의 제정과정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법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인권침해나 독재도 가능하다는 시대착오적 법 만능사상도 사라져야 할 때이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베이컨이 경고한 대로 법률이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쓸모가 없게되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회의에 빠진다。

고 침

본보490호에 게재되었던 「40만 청년학도의집행부, 서학련건설」의 필자 김진홍씨 (내학원신방과3학기)가 김진홍으로 오기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법은 정권 유지수단이 아닌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 돌아와야

통치기구의 자의적해석 가능한 제반악법 폐지없는 양심수 석방은 정치협상의 흥정물에 불과

캐럴의 눈

5월의 하루

지난14일 (토) 오전9시30분 삼민광장에는 「광주망월묘역 공동참배」를 가기위한 서울·용인 4백여명의 학생들이 운집해 있었다。

오전10시 학교를 출발하여 참배하고 금남로,충장로등 당시의 격전지를 돌아볼 예정이었던 「망월묘역 참배」는 학교측의 고의적인 교통편의 지연으로 인해 오후2시경에 출발하게 되었다。7대의 차량에 나뉘어 탄 학생들은 「가자! 혁명광주로」 「학살원흉처단」 등의 구호를 참문에 붙인뒤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연도의 시민들에게 『학살원흉 노태우는 ,반드시 처단되어야 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저녁 7시30분경 망월묘역에 도착한 학생들은 「광주항쟁 유가족협회」 회원들과 고 (故) 이한열 열사 부모님의 환영을 받은뒤 추도식을 진행하였다。비가내리는가운데 「광주민중통지회」 회원 김태한씨의 사회로 진행된추도식은 양찬모 유가족협의회 부회장의 환영사와 묘역근처에 진달래 기념식수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재 1백17명의 광주항쟁 열사묘와 10개의 민주열사묘등 1백27열령이 안치된 이곳은 지난 8년동안 관 (官) 으로부터 직·간접의 회유와 뇌물 또는 협박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한다。결국 11개의 묘가 다른 곳으로 이장해가기도 했으나 나머지 묘는 유가족들의 항쟁속에서 지금까지 망월동을 지키고 있다。

80년 망월동이 열사들의 묘로 자리잡은 이후 처음으로 학생들의 단체참배가 이루어진 이번 망월동 묘역참배는 5월항쟁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요식행위로서 치부할 수는 없다。

2천여 광주영령들이 잠들어있는 묘역에서, 간간히 의식을 치루는 학생들의 숙연한 모습에서, 「5월가」 「광주출정가」의 노래소리에서,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승리로 승화시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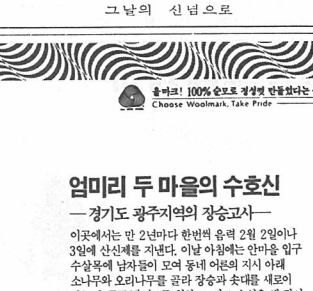
광주항쟁 여덟해를 맞는 지금, 광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희생자가족의 금전적 보상, 학살원흉의 「심심한 유감표시」는 문제의 본질을 더욱더 은폐시키는 결과에 불과하다。

주목할것은 80년 광주항쟁은 논리와 사상의 표출이 아닌 진정한 인간해방을 위한 민중들의 실천적 행위였으며, 이것은 바로 역사발전의 주체가 우리 민중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던것이다。

어느 무명열사의 묘비에 새겨진 「지천에서 피꽃으로 흐드러질때, 해방으로 임궐졌던 넋」이라는 비문이 더없이 우리의 가슴속에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5월에 광주항쟁의 외외와 각오를 다시금다져야 할것이다。

<이 진기자>

외대만평



그날의 신념으로

第一毛織

울마크! 100% 순모로 정성껏 만들었다는 증거
Choose Woolmark, Take Pride

"본업은 수호신, 이정표는 부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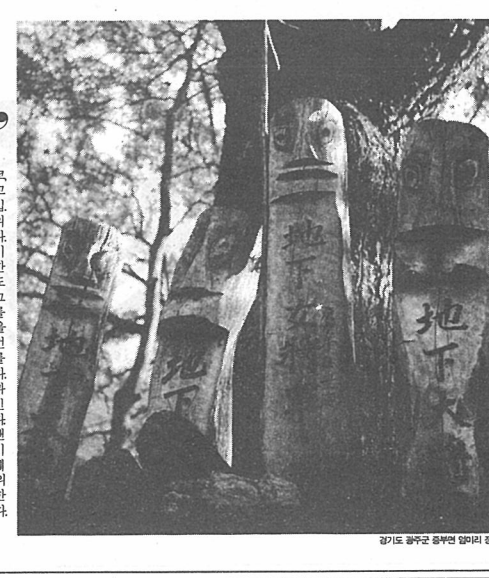
튀어나올 듯 툭 불거진 눈에, 갖다 붙인 듯한 주먹코, 그리고 때로는 가가대소 즐거워 웃는 모습같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으며 호통을 치는 모습같기도 한 커다란 입.

이것이 지역에 따라 장신, 수살, 벅수, 돌하루방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장승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마을 입구나 사당 근처에 천하대장군·지하여장군이 짝을 짓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덮칠 듯 구부정한 허리와 험악한 인상으로 때로는 섬뜩한 느낌마저도 들게 하는 장승. "가루지기타령"에도 보이듯이, 본래 그 기원설화에 호색적(好色的) 인물의 징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장승은 단순히 길을 표시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실은 최소한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민간신앙의 대상물로, 따로이 장승제를 지낼 만큼 귀하게 모셔졌던 신성스러운 상징물이었습니다.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돌과 나무의 영험한 생명력과 풍요로운 그 심성을 숭배하여, 이것을 깎아 상징적인 신상(神像)을 만들고 정성들여 제를 올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장승에 금줄을 치고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낸다든지, 장승의 눈을 깎아 물에 타 마시면 낙태약이 된다든지 하는 속설이나 풍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장승은 액(厄)으로부터 마을을 지켜 우리 조상들의 마음 한구석을 든든하게 해 주었던 늠름한 수호신(守護神)이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장승

엄미리 두 마을의 수호신
—경기도 광주지역의 장승고사—

이곳에서는 만 2년마다 한번씩 음력 2월 2일이나 3일에 산신제를 지낸다. 이날 아침에는 안마을 입구 수살목에 남자들이 모여 둘네 어른의 지시 아래 소나무와 오리나무를 골라 장승과 솟대를 새로이 깎는다. 주토(朱土)를 칠하고, 띠로 수염을 해 달아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등을 먹으로 써넣은 새 장승과 솟대를 묵은 장승과 솟대의 옆에 세운다. 이때 많은 제물을 차려 놓고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장승고사"를 지내고, 자정이 되면 다시 당산(堂山)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된다.

당산이란, 산신당·서낭당·장승 등이 서있는 성역(聖域)을 일컫는 말이다.

새마을의 건너마을인 거리마을에서는 자정부터 산신제를 지내고 날이 밝으면 내려오면서 서낭당에 제를 지내고 장승과 솟대에 장승고사를 지낸다.

새마을의 산신제는 고기를 쓰는 육산제(肉山祭), 거리마을의 산신제는 고기를 쓰지 않는 소산제(素山祭)라는 점도 하나 다른 점이다.

최고의 품질
콜덴텍스

예속, 학살, 착취로 얼룩진 한국군

—5월 광주항쟁을 계기로 본 한국군부의 성격

정 우 성
현대사 연구가

『……한국군은 우리나라(미국) 의 투자를 지켜주는 훌륭한 보초병으로서의 군대라는 것을 미국의 국제자들은 잘 알고 있으며, 또 한국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내는 군대이다. 많은 수의 미군이 직접 한만도에 가있는 것보다 현지에서 군대를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전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아! 심바! 심바! 해오던 일들이 밝혀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사에 깔리고 나무나 전봇대에 또라지는 사실을 20일밤부터 계엄당국은 방포명령을 내려 무차별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여러분! 그렇잖아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80. 5. 25 시민군 일동의 성명서)

Ⅰ. 머리말

80년5월 민중의 뜨거운 광주에서 나오는 예속군부세력에 대한 지원한 항쟁이 어느새 8년의 세월을 건너, 5월18일의 만월을은 다시 5월을 맞고있다. 광주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되어 무참히 학살을 자행하던 군부내의 지휘관들이 여전히 서슬퍼런 권좌에 앉아있는 요즈음의 5월을 살고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이 깨닫는 사실로 5월광주와 직면해야 한다. 광주항쟁은 결코 기념비적 사건이 아니요, 지난날의 한으로 국한시킬수 없는 문제다. 그것은 5월광주가 역사속에 죽어있는 사건과 관련이 아니라 오늘 우리사회 전반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5월을 맞이하는 우리는 광주항쟁의 원점에서 이전과 그 만큼의 일부를 알고있고 있을 뿐이다. 이제에서 광주의 우리에게 남겨준 역사적 과제의 심각이다. 관점을 유지하면서 한국군부의 본질과 현대사의 과제를 추적해보고, 광주항쟁을 계기로 전망하게 제기된 민중적 예속군대의 타파를 위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Ⅱ. 한국군의 역사적 본질과 현주소

우리의 현대사는 굴절된 제로점의 배태와 대세적 위관구조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한 1945년~1948년, 즉 「해방공간」이라 불리워지는 시기에 형성된다. 우리 민족의 기백충추고 가슴벅차했던 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일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었을 뿐이며 「민족해방」은 아니었고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인 새로운 예속동지전선로의 편입의 시작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다는 명목으로 반도남북에 들어온 미국은 친일민족주가를 회생시키려는 남방한 정세 민족의 염원을 짓밟고 이미한 한민족 이유와 근거도 없이 이땅에 3년이라는 세월의 미군정을 실시함으로써 분단의 본질적 기초를 닦았다.

「식민지와 미약」의 역사는 주려 가야했던 이식기의 한국사회는 현명적 상황에 직면하여 사회구조적 계급모순이 정치적 충위로의 폭발적 전환을 가져왔으나 혁명적 세발인 민중과 미국의 지원하에 있던보수만동세력 사이의 국가권력을 매개로한 첨예한 갈등양상은 결국 외세에 의해 굴절되면서 급격히 보수세력에 권사되어가고 일제강점기의 모순이 새롭게 온존, 심화, 확대되면서 분단국가의 형성으로 마무리되었다. 과대성장된 식민지국가권력의 되김과 안 정치세력간 힘관계의 간사의 시기에 남한에 들어와 강력한 연합력을 행사한 미국은 첫째 보수진영과의 제휴강화, 둘째 강력한 집권력 확보, 세째 남한의 분대원성, 네째 좌익탄압을 전략적 목표실현을 위한 제 정책들을 구체화시켰다.

한국군은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생성되게 되는것이며 그 맹아가 1946년 발족된 「남조선국방경비대」로 나타났다. 이처럼 출범당시부터 미국에 의지되어 예속되어 나타나는 한국군대는 이후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주장하며 벌처일어섰던 제주도 4·3항쟁과, 대구에서의 추수폭동을 참절하던 민중의 자력적 무장투쟁을 진압해가면서 성장했다. 또한가지 특징은 한국군 형성시기의 주요 지휘관은 주로 일본군출신으로 충원되었는데 일본군의 군사적 전통과 군인의식으로 물들어있던 이들은 한국군의 성격을 「친성」과 「친족」을 강조하는 일본천민군사 정신군대 풍도를 규정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한국군은 출발부터 미국의 지배라는 외적요인과 일본군의 분위기를 띠는 내부풍토성의 아이러니를 함유하게 되었고 이점은 이후 한국군의 예속적·반민주적 행적을 규정하게 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갔다 것이다.

한국군창설이후 미국은 대소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적인 한국군 증강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 50년대 친미예속권에 제공된 원조의 70~80%는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제공된것이었다. 1954년11월 「한미합의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은 육군 66만 1천명, 해군 1만6천명, 해병대 2만7천명, 공군 1만 6천명을 합계 72만명의 대병력을 확보하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군의 지휘관문제에 있어서도, 53년10월1일 휴전협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54년10월17일에 성립된 「UN군의 작전지휘권에 관한 한미합의 의사록」, 5·16이후인 5월26일 발표된 「국가재건 최고회의와 UN군사령관의 공동성명」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휘권이 누차 강조, 확인되면서 주한미군 존재의 합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그 군사적 자주권을 상실한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온 60만 이상의 대병력확보는 전고 북한측 의식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대소봉쇄라는 미국전략을 수행하는데 한국군의 대규모 병력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군인이 위원장인 「한미연합사령부 군사위원회」가 지니고 있는데 그 지휘체계를 나타내면 <도표>와 같다.

이렇게 성장해온 한국군은 미국의 철저한 장악속에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왔으며, 한국내부의 전투적 민중운동에 대한 섬멸작전은 물론, 심지어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전략지역의 국가에까지 가서 싸워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실제로 한국군은 미국이 원하는 바에 따라 월남전 이역땅 베트남에까지 가서 「미국전략의 수행과 부패한 고딘디엠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월남민중과 싸우기까지 했다.

아무런 이유없이 베트남 내전에 끌려가 영문모를 죽음을 당해야 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용병으로서의 한국군의 역할을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당시 미태권양군사령관은 『한국군은 용감무쌍하다. 미군이 용호해낼 수 있는 의미이다.

1964년 5월3일 전CIA장관이었던 마렌 덜레스가 연국 BBC—TV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중에 CIA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이 이 혁명(5.16 쿠데타지칭)이었다. 미국에서 일부 지도자가 지지하고 있던 장면내각은 부패하였고 이승만정권을 타도한 한국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만일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민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현혹되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밝힌 내용은 결국 미국의 쿠데타관련을 심도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그다음 군부의 중요한 또 한가지 역할은 친미권력에 참가하는 전투적 민중운동을 즉각적으로 섬멸함으로써 그정권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반민족적 독재권력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거세어지면 곧 군부를 동원해 민중항쟁을 진압할 수 있는 결정적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우리는 80년5월 광주시민의 무참한 학살을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된다. 80년 5월18일 워컨한미연합사령관은 광주민중항쟁 진압을 위한 군부의 병력동원요청을 받아들이고 조기결보기 2대와 함공모함 코시필호를 부산항에 급파, 군부를 지원했던 것이다.

남시 미국이 반표했던 성명의 내용중 『계속되는 불안과 소요의 확대는 외부군사력에 의한 오판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재강조한다』는 부분은 광주항쟁의 전국적 확산시 직접 무력진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것이었다

광주항쟁은 바로 이러한 한국군부의 속성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항쟁당시 광주 민중들은 무장투쟁을 통해 반민중적 군부에 전투적 전선을 형성했던 것이다.

Ⅲ. 군부의 민중학살만행에 항거한 반군투쟁의 분수령 5월항쟁

80년5월 광주항쟁은 우리의 변혁운동을 비약적 국면에 접어들게 하였던 결정적 계기였으며 현존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 세력이 바로 군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했다.

즉, 광주항쟁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민중이 역사의 주체, 변혁의 주체로서 자리잡으려 했던 민족사의 분수령이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외에도 광주항쟁은 한국에서의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파행적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줌과동시반민중적 군대와의 무장투쟁에 실천적으로 맞서있어섰다는 점에서 반군투쟁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왔다. 이글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면 우선 항쟁이 무장봉기로 발전하게되는 계기를 잠깐 살펴보자.

5월18일 0시를 기해 전국으로 확대된 계엄령과 휴교령이 내려지고 전날대생의 교문집결과 진입시도, 이를 막는 계엄군의 폭력적 방어속에 학생들의 가두진출과 계엄군의 학생들에 대한 투자비한 진압은 시민들을 분개시켰고 민중봉기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21일 계엄군의 발포명령이 있기까지는 주로 대검개머리판, 쇠붙이가 박힌 곤봉등의 무기로 학생들을 진압하였으므로 그 참혹성은 극에 달했다.

이것은 일본육사출신의 친일매국노집단이 중심이 되어 출범했던 한국군부가 그 예속적, 반민중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양민학살의 도구가 되어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난동극을 벌임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외세와 친미독재세력에 대한 충성의 논리」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시키는 작태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속에서의 시민들의 무장봉기는 스스로를 구출하고자 하는 자기희생의 결단이자 인간적 본능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를통해 그동안 교묘히 은폐되어있던 지배세력에대한 적과 동지의 구별이라는 정치권력의 속성이 대중스스로의 투쟁과정속에서 자연히 각인되어갔음을 알수있다. 시민들 스스로 무장투쟁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폭력이 양심의 관단에 근거한 도덕적 행위임을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한편 광주항쟁의 과정은 비단 피학살자인 시민의 투장화 뿐만 아니라 가학살자인 군부 내부에도 큰동요를 가져왔을 또한 부인할수없다.

실제로 이러한 잘못된 군대에 반대하여 광주주둔 계엄군내 전남출신 병사들의 발포거부가 확산되고 지원예비사단인 31사단을 중심으로 명령불복종의 동요가 확산되어 가자 전투환일당은 이러한 광주주둔 계엄군의 애국적 반란을 통제하지 못하여 27일의 진압은 광주지역 이외의 계엄군으로 가능했던것이다. 결국 학살주범들은 국제여론과 군내부의 반발, 봉기의 확산조짐, 항쟁의 장기화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무력진압을 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항쟁지도부의 시민군조직인 기동타격대를 구성했던 계층·계급은 어떠했었는가.

실제로 무장 시민군을 구성한 계층은 영세기업체의 노동자, 실업자, 구두닦이 등 빈민층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기존 사회구조의 변혁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는 별로 없었음이 드러난다. 또 조직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힘이 발현됨을 볼때 기동타격대의 구성원은 이데올로기적 자각이라기 보다는 본능에 근거한 투쟁을 수행해나갔음을 알수 있다. 지도부역시 이데올로기적 자각을 담보해 줄 수 없었다. 투쟁수행과정을 보면 기동타격대의 인원은 28명에 머물렀고 외곽을 담당했던 예비군을 제외하고는 27일 새벽 진압군이 진입할 때 최후까지 도청주변을 지켰던 사람은 200여명 안팎이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급간의 차별성을 기나치게 강조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현실에서 당시 살아남기 위해 숨어있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민중적 군대쟁취를 위한 향후 투쟁에 있어서 광주항쟁이 물려주는 유산을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그 완수를 위해 극복할 문제들을 모색하자는 차원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항쟁을 계기로 볼때 미국과 친미예속지배세력에게 폐악긴 국운을 민중의 편으로 정취해내는 문제는 변혁운동의 중국적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임이 확인되었으며 반군투쟁 (기존모순을 제국주의군대와 식민지병사간의 모순, 군대내 계급간 비민주적 모순, 용병화되어 지휘받는 국군과 민중간의 모순) 의 대중적 전개는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징집거부와 수만명에 이르는 탈주, 입소거부사건및 군대내 민주적 병사조직의 맹아적 시도등은 줄기차게 계속되어왔다.

아울러 학생들의 입소교육 거부투쟁과 미국의 용병화된 국군현실에 대한 폭로는 반군투쟁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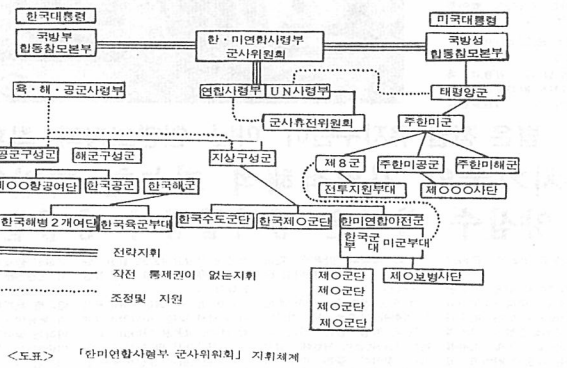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한국군의 예속적 본질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수행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모든 식민지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는 식민통치세력에 대한 식민지 피압박민중의 피나는 전투적 항쟁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중핵으로 등장한 미국은 전세계적 반제투쟁을 무력과 기만으로 저지하고자 보다 교묘한 형태의 예속통치질서를 구축해갔으니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분단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후 그들의 가장 믿을만한 예속군부독재체제로 대소전진기지화하기 위해 군을 계속 장악 쿠데타와 민중운동의 토벌작전이라는 가공할 탄압의 역사를 전개시켜온 것이다.

이제 왜곡되고 뒤틀린, 진실이 어두워져버린 한국 현대사는 「예속을 강요하는 외세와 이에 합거해온 한국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장엄한 투쟁사」로 다시 쓰여져야 한다.

아울러 광주항쟁을 계기로 그 분수령을 이루었던 한국민중의 예속군부에 대한 반군투쟁의 수렴은 향후 완전한 민족자주화와 민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변혁운동 과정에서 올바로 해석되고 계승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70만의 상비군, 154만의 예비역, 향토예비군 330만, 기타 민방위등 총1천2백여만명에 육박하는 피군사교육대상자로 소속된 한국민중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장하고 조직화함에 비로소 자주·민주·통일의 길로 들어설수 있을 것이다.



<도표> 「한미연합사령부 군사위원회」 지휘체계

광주항쟁은 한국군의 예속적·파행적 성격 드러내

한국군은 대소전진기지 위해 쿠데타·민중탄압 일관

해태제과

'사랑의 언어'—'허쉬'

젊은 날의 낭만으로
수놓는 사랑이야기!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미롭게 스며드는
그 이름 허쉬!
사랑한다는 말없이
허쉬 초콜렛—
한 조각의 허쉬 초콜렛으로
사랑을 고백한다.
감미로운 사랑의 언어,
—허쉬!
영원한 사랑의 언어,
—허쉬!

자주화운동과 반핵운동의 올바른 실천

김 지 윤
〈공해추방청년협의회 연구원〉

1. 글을시작하며

이땅에 하나의 운동으로서 반핵운동이 제기된 것은 86년의 「반전·반핵 운동」이었다. 이당시 반전반핵운동은 한반도가 미국에 의한 식민지임을 폭로하고, 제반억압과 착취의 근지에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미자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반전반핵 양키고홈」 「미국은 핵기지를 철수하라」 「휴전협정 체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 「주한미군 철수하라」가 당시의 주요한 이슈들이었으며, 미국의 상징적 장소에 대한 점거농성, 양키용병교육 전방입소거부투쟁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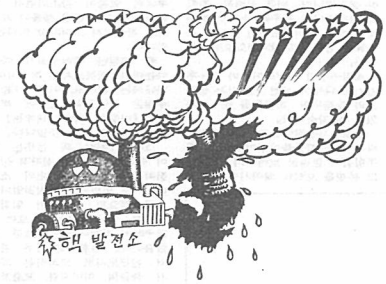
이당시의 「반전·반핵운동」은 미국을 현군사파쇼의 실질적 지배자로 파악하고, 중심이 되는 당대 최고의 과제는 민족해방운동임을 선언하였고 미국이 한국에 갖는 지배 메카니즘은 대소전진기지로서의 군사적 이익이 여타 경제·정치적 이익을 포괄함을 폭로하였다.

이렇게 핵무기는 실제사용을 전제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과 신식민지 세계체제 건설의 무기였다.

1949년 소련이 원폭개발에 성공하면서 미·소의 핵무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50년대는 「공포의 균형시대」를 맞이한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전략핵무기는 실전가능성을 상실해 갔으며 민족해방운동은 베트남의 대불란서 독립전쟁에서는 베트남을 협박하여 남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핵무기는 실제사용을 전제한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보하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하는 전략을 짜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기초로하는 핵전쟁연습이며,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전제한 공격훈련이다.



결론적으로 핵무기는 체제대립의 내용을 포함하기만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체제지배전략의 산물이며, 파괴와 군사적 남비를 자기이윤실현의 원천으로 삼고있는 파괴적 미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반전반핵운동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평화애호 대중이 전쟁과 파멸의 위기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전쟁과 핵의 본질인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에 반대하는 운동이며, 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뜻을 함께 하는 운동이다. 실제로 서구의 반전반핵운동은 베트남전쟁과 니카라구아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렇듯 반전반핵운동은 반제반독점운동이고, 노동계급을 중심으로한 민족해방운동이 중심입의 내용을 포함하기만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체제지배전략의 산물이며, 파괴와 군사적 남비를 자기이윤실현의 원천으로 삼고있는 파괴적 미신식민지 지배체제로 바뀌면서 한반도는 미국중심체제의 최전방에서 미국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인질로 잡혀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으로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라 불리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배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한반도 이다.

따라서 반전반핵운동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민족의 힘으로 결정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제물에서 자신의 생존을 수호하려는 운동으로 이 땅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의미지워진다.

■ 반전반핵운동은 이렇듯 반미자주화 운동으로서 보편적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군작전지휘권의 회복과 핵기지의 철수, 나아가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구체적 군사지배 거부운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반도의 해위기는 분단과 분리시켜 생각되어 질 수 없다.

최근 기독교와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반전반핵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제1의 방해물인 핵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반전반핵투쟁은 「분단의 원흉」을 분명히 하였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분단극복의 내용을 지니고있다.

아울러 반전반핵투쟁은 핵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가보안법 폐지, 매판정권의 본질에 대한 폭로를 중심으로 한반도 변혁운동의 현장에서 다양한 민중운동과 형등을 함께 하는 구체적 침조를 모색이 되어 이끌어가야 할 세계사적 민중운동이다.

반핵은 자주화·분단극복 담아 다양한 민중운동과 함께해야

2. 이땅의 반핵운동

제국주의는 그 침략에서 경제적 착취를 통한 본국 독점자본의 입여수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제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식민지 세계체제를 재생산하고 이를 강화하는 정치·군사적지배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군사적 직접지배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가 냉전논리를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간접지배방식을 취하는 한 전략을 기초로하는 핵전쟁연습이며,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전제한 공격훈련이다.

국군사복합 독점자본의 산물이다.

그러면 이제 반전반핵운동의 실천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자주화 운동으로서 보편적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군작전지휘권의 회복과 핵기지의 철수, 나아가 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구체적 군사지배 거부운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한반도의 해위기는 분단과 분리시켜 생각되어 질 수 없다.

최근 기독교와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반전반핵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제1의 방해물인 핵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반전반핵투쟁은 「분단의 원흉」을 분명히 하였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분단극복의 내용을 지니고있다.

아울러 반전반핵투쟁은 핵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와 국가보안법 폐지, 매판정권의 본질에 대한 폭로를 중심으로 한반도 변혁운동의 현장에서 다양한 민중운동과 형등을 함께 하는 구체적 침조를 모색해야 한다.

Ⅲ.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반전반핵운동이 한반도 변혁운동에서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변혁운동은 반전반핵을 중심으로 세계민중운동의 전위부대로 세계의 평화애호대중을 이끌어 가야 할 세계사적 사명과 한반도의 실정적 핵위기를 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극복해야 할 민족사적 사명을 두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반핵운동은 한반도의 군사지배 거부 핵·주한미군 철수 작전권회복 포함

그러나, 86년의 반전반핵투쟁은 몇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정시켰는데 우선 이 운동은 대중적인 기초로 이루어진 운동이 아니라 일부 학생운동권의 선도투쟁으로 그쳐버렸다는 점이다. 통일과 자주의 문제가 관념으로부터 대중의 절실한 통일의지와 반핵의지가 결합되면서 반전반핵투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대중적 기초가 전혀 없는 가운데 몇몇의 구호적인 선도투쟁으로 그쳐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지식인들에게 있어 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민중적 수준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일시적 투쟁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그것은 투쟁주체에 있어서조차 관념적 반미를 반핵으로 대체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기때문이다.

Ⅱ. 중심글

1. 반핵운동의 올바른 실천을 위하여

우리 반핵운동의 과제는 올바른 인식에서 핵운동의 논리를 세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재무장해야 한다.

반핵운동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극복하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야 한다.기존의 반핵운동에 대한 그릇된 관념적 인식은 다음 두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로 「세계는 현재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라도 있어야 세계 3차대전을 방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핵무기는 「필요악」일 것이고 서구 유럽의 반핵운동은 공상적 이상주의자들의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둘째로 「현시기 정치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을 방기한 채 반전반핵은 또 무슨 말인가?」의 입장이다.

그들은 일부학생들의 선도투쟁의 내용임 수는 있어도 민중운동의 성장에 있어서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는 관념적 오류에 빠져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반전반핵은 한반도 모순을 다양하게 폭로하는 일부분으로서 유인물에나 몇줄 들어갈 것일 뿐 인텔리나 소수 과학기술자의 소시민적 몸부림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관념적 오류의 뒤에는 엄청난 제국주의 냉전논리가 숨어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그리고 핵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채 현존하는 핵위기를 다만 핵무기가 몇개있다,없다등으로 현상의 모습에만 치중한채 본질을 감추는 제국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임을 알아야한다.

핵무기와 핵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착취와 지배의 산물이다.

전후 제국주의의 맹주로 등장한 미국은 신식민지 세계지배체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군사적으로 탄압하기도 하고, 핵무기로 협박하기도 하고, 매판세력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기저에는 이들의 냉전논리가 깔려있다.

냉전논리란 미국의 3세계에 대한 침략을 미·소의 대립관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으로 파악하는 논리로 위장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투진영임에는 틀림없다. 또 현실적으로 핵무기 경쟁을 벌인 것도 바로 이 두 세력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이익은 식민지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핵무기 생산로 이익을 보는 군산복합독점자본의 파괴적 이윤실현논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전후 미국의 군사전략의 기조는 「소련을 견제하면서 제3세계를 간섭 (침략) 하여 미국의 이익을 실현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핵전략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전후 핵은 미국의 독점물이었고, 일본에서의 위력과시 후 미국은 핵의 위력으로 한국전쟁시에는 중공을 협박하였고 다시 새롭게 고양되었다.

미의 세계체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발생한 베트남 전쟁, 주바혁명등의 결과 미국은 다시 실전 사용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전역·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제한핵전쟁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이것이 바로 60년대의 유연반응전략이다. 이는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에 맞서 미국이 핵무기의 실제적 사용으로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자 하는 음모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70년대에 접어들어 미·소간의 경쟁의 지속,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심화, 3세계에 대한 착취의 강화에서 민족해방운동은 지속적으로 고양되고, 70년대말에는 이란혁명과 니카라구아혁명등의 발발로 미국의 지배사슬에 또다시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에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내걸고 등장한 레이건 정권은 「무한 군비경쟁」과 「모든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한 즉각보복」을 선언하고 나선다.

이러한 음모는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는데 1983년 2월 미회의에 제출한 국방보고서를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국방보고서에서 당시 미 국방장관 와인버거는 『소련이 중동산유지역에 개입할 경우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석유자원 지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남베트남 지역에 핵공격을 감행하는 전략을 짜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바로 이러한 전략을 기초로하는 핵전쟁연습이며,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전제한 공격훈련이다.

결론적으로 핵무기는 체제대

◇한국현대사연구회, 『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 공동체

왜곡된 정치사(政治史)의 극복을 위하여

김 청 석
〈고려대·석사과정 졸업정치학〉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정치」는 권력을 장악한 집권세력에게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만병통치약으로 간주된 반면 대다수인 민중들에게는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다. 왕이나 총독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봉건왕조시대나 일제식 민지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주권재민을 고창하는 명색이 「민주공화국」 시대에 이르러서도「정치」에 대한 이같은 관이한 인식의 차이는 가셔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단 한번도 제 몫을 다하는 정치, 바람직한 모습으로서의 정치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정치무대에 등장한 정치인들의 자질이 낮았기 때문인가?또는 혹자가 이야기 하듯이 GNP가 2천불시대에 이르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민간인이 담당해야 할 몫을 군인이 담당해서인가?모두들 나름대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들은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히 부분적인 현상 또는 그결과를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정치」라는 것을 흡다름은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로 가져놓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비난하고 체념에 젖는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치는 그런데에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루탄과 화염병이 나뒹구는 대학의 캠퍼스에, 가두에, 그리고 민주노조의 선립을 둘러싼 노조원과 폭력적 구사대의 충돌 속에, 그리고 저 고문과 조작의 밀실 안기부와 치안본부의 지하실에 이 시대의 정치의 현장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아무리 공화국앞에 붙는 아라비아숫자를 늘려봐도 민중이 원하는 정치, 민중 자신이 주체가 되는 정치는 여의도에서 만개할 수가 없다.

혹자는 이같은 주장을 극단적인 절망의 표시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그동안의 오도된 인식을 지적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정치」란 결코 경제, 사회, 문화등의 부문과 동떨어진, 또는 그것들과는 이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다.

좀 다른 표현을 쓰자면 정치란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상황을 집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혼히 이야기 되듯이 『경제는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쓰디쓴 자기모멸의 언사이거나 아니면 현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파편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회의 이

제국주의·예속정권에 대항, 자주·민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위한 민중투쟁의 역사관에 입각하여 서술。

곳저곳이 모두가 다 정치의 현장으로 되고 있는 현실은 이나라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정치를 할수 없는 나라, 곧 자주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정치가 「정치인」의 손에서, 「정치무대」에서 뛰어나와 여기저기에서 돌출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악순환이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할 주체가 진짜로 정치를 하게 만들기 위한 지난한 몸부림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끝내는 완성되어야 할 이시대의 명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실제로서의 「정치다운 정치」를 가져보지 못한 현실은 그대로 학문분야에서도 반영되어 또한 「정치사다운 정치사」를 가져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8·15이후로 접어라도 이나라에 정치학이 도입된지는 4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언리칭 「한국정치사」를 써왔다. 그러나 그들이 쓴 대부분의 책은 그들이 공부한 외국학자의 개념과 이론틀을 한국문제를 소재로 하여 풀어먹는 것 이상이 되지를 못했다. 정치학만을 도입한것이 아니라 한국정치사의 서술마저도 그 시각과 방법을 「도입」했던 것이다. 그들이 쓴 책 속에는 한국의 현실정치가 들어있는것이 아니라 외국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소재로서의 한국정치만이 극히 파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원용되었을 뿐이다.

뒤늦게나마 우리는 이같은학문에서의 비자주성, 식민지성을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현대사연구회가 역고 공동체에서 펴낸 「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는 하나의 뜻있는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국주의와 예속정권에 대한 민중투쟁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서문에서부터 「정치」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의 올바른 위상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에서 쓰여지고 있는 정치의 개념은 『국가권력의 통치행위나 몇몇 정치인들의 활동이라는 식의 협의의 범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체제를 현상유지하려는 지배세력과 새로운 사회체제를 갈망하는 대항세력사이의 힘의 맞부딪힘이라는 보다 광의의 범주로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이책은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총체적인 사회진보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확인해주는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1장.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정으로부터 제12장.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1백여년의역사를 포괄하고 있는 이 책은 이 나라의 지주화와 민주화를 짓밟은 제국주의와 예속정권에 대항하여 그것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이 땅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온 민중의 입장에서 확실한 시각으로 정리해내고 있다.

이 나라 정치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사회경제사와 정치사는 어떻게연관되는지, 나아가 이 땅에서 외세의 사슬을 끊고 자주적인 새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이책은 적지 않은 시사를 줄것으로 믿는다.

「밀실」에서 「열린공간」으로—민중주체의 오월문학

▲현준만—70년대 문학이 김지하의 「오적」과 황석영의 「객지」로 막을열었다고 말한다면, 80년대의 문학은 광주민중항쟁을 시발점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주항쟁을 형상화한 「5월문학」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결국 80년대의 문학사를 이야기하는 셈이죠.

그것은 80년 5월 광주가 우리민족운동에게 부여해준 과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민족운동과 분단분의 관계를 맺는 민족문학·민중문학에서 광주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광주항쟁이 우리 문학에서 어떻게반영되었으며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수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광주민중항쟁의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먼저 짚어보아야 할것 같군요.

▲고규태—광주항쟁은 70년대 자유주의적 양심적 지식인들이 주체가 되었던 「민주화운동」이 어느정도 한계를 노정하는 가운데 민중이 주체로 서는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한국현대사 변혁운동의 올바른 위상을 자리잡게 해주었읍니다.

다시말해 광주항쟁은 이전의 양심적 지식인이 주체가 되었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반외세 자주화 통일로 변혁운동으로 나아가게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정도상—광주항쟁이 반외세 자주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론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해방직후 3년을 돌아보면 반외세 자주화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음을 짚을수가 있는데, 쉽게 대구 인민항쟁, 제주도 4·3항쟁, 여순항쟁등을들수있는것입니다.그러나 단정수립이후 우리 민족의 반외세 자주화 투쟁이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광주항쟁의 의미가 우뚝서보이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조선인을 통한 조선인의 학살」이라는 정책은 70년대까지 반외세 자주화에 대한 물인식을 가져오게했고, 그러면 이제 광주항쟁이 문학에 끼친 영향들을 총론식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학적 차원의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70년대 김지하가 민중문학의 이념을 제시한 「중자나 자살이냐」식의 문제제기가 80년대는 한 걸은시인의 시제목처럼 「직설이 아니면 타살이다」로 나타나듯, 문학의 대(對) 사회적 반응양식이 바뀐것을 들수 있읍니다.

▲정—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김지하시의 비극적 서정들이 풍자라는 구조를 통해 그려질수밖에 없었읍니다.

때문에 「5적」등의 담시에서 처럼 70년대를 완곡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이는 70년대식 자살이었죠. 그러나 80년대의 상황은 함거속에서 살해, 즉 타살을 당해야 했읍니다.

자살의 경우는 지식인에 해당되지만, 타살은 민중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학적 차원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70년대 소박한 민족적 리얼리즘이 80년대에 전투적 리얼리즘으로 변하게된 것은 주목할 만한일입니다.

▲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해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80년대의 문학은 광주의 5월로 시작한다고 말했지만, 이「5월」은 70년대 중앙정보부와 같은 「밀실」에서 벌어지던 학살의 양태가 「광장」즉, 열린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70년대 김지하식의 풍자와는 다른 시각을 요구할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이 미처 형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문학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읍니다.

80년대초 시가 부각되고 소설이 본격화 되기까지 4~5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총체성을 지니면서 그 이해의 폭을 수용해야 하는 소설을 중심으로한 산문구조」는 광주항쟁과 같이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현실, 허구적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일정정도 죄의식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지식인적인 입장에서 자기검열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남주의경우는 자기검열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유의 끝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5·18에 대해서는 자유를 획득했다는 아이러니칼한 현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현—광주항쟁을 다룬 시 가운데 최초로 발표된 김준태의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는 기동성이나 작가의식의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도 상

"전반기 패배주의적 흐름이 후반기 홍희담의 「깃발」로 극복되어… 광주항쟁의 기원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으로까지 확대시켰다고 하는점입니다."

그리고 80년이후 시의 움직임을 이야기 하는데 있어서 문학소집단의 운동성을 띈 문학동인들의 경우를 빼놓아서는 안되겠죠.

▲고—에 좋은 지적입니다. 김준태의 경우는 5·18의 전반부분에 있었던 학살을 폭도하고 쓰여졌던 글이었죠. 그외에도 당시 익명의 시들이 상당부분 발표 되었읍니다.

그리고 81년 「5월시」 동인의 출이 강했다고 볼 수 있읍니다.

특히 임철우의 소설을 보면 광주의 5월을 사회변리학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읍니다. 주인공들의 정신적 폐해를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으로는 광주항쟁의 본질에 미치지 못하죠. 제생각에는 그들의 정신적 폐해보다는, 민중들이 처절하게 죽어갔던 부분들을 민족해방 전쟁의 차원에서 승리를 위한 거룩한 모습들로 그려내었어야 했겠죠.

그리고 윤정모씨의 「밥집」을 보면 서정성과 도피성이 너무 강조되고 있읍니다. 이는 마치 광주항쟁자체를 감추려하는 것같아요.

▲현—그당시 사회적 상황이 작가를 철저하게 자유로울 수 없도록 의 모습들은 인상적인 삶을 그려내는 소설의 경우 더 잘 나타날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시대적, 정치적 상황속에서 광주를 소재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지만 몇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정—우선 도식적이나마 전·후반기로 나누어 보면 전반기는 윤정모와 임철우의 작품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서정적이었고 알레고리가 매우 심한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광주항쟁의 본질을 보여주기 보다는 그 본질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깃발」의 경우는 민중이 주체로 설정되어 실제적 상징을 정확하게 반영한 최초의 소설이란점에서 의의가 크다할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철우의 「동행」이나 「봄날」을 보면 모두 광주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읍니다. 「동행」의 경우 광주에서 인근도시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도출해 내고있죠. 그러나 윤정모의 「밥집」 부분들은 막혀있는 진실부분들을 밝혀내려는 모습이 「밥」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깃발」이 나올수 있는 구조로 가는 과도기적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깃발」의 경우 철저하게 집단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양상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현—재생각에는 「깃발」은 카프(KAPF)나 해방공간에서 나왔던, 변혁주체를 올바로 형상화한 작품들과 맥이 통한다고 봅니다. 물론 「깃발」 자체에는 표현이 거칠고 미숙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독자들에게는 생명력있게 느껴지는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보고문학적 차원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여성노동자들이 야학교실에 모여 5·18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보여 지듯이 동일한 계층내에서 다각도로 5월을 해석하는 것을 들수 있겠죠.

또 하나, 항쟁과정을 묘사하는중에 민중들이「세무서」「노동청」「파출소」「방송국」을 적대적인 적의 실체로 인식하고, 이에대해 정확하게 타격을 주고있으며, 해방구에서 그당시 행아적으로 있었기때문에, 이것이 비록 지배이데올로기에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았다해도 그 행아적인 부분을 현실의 전면으로 끌어내야 하는것은 작가의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과거의 객관적 시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과 현대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배치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죠.

▲고—제가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는데 항쟁초기에 외국인교수들에게 본국소환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읍니다. 이를 집약시켜보면 8년동안 5·18을 바라보는 사회과학적 인식들이 많이 터득되어졌는데, 실제로 5·18에 녹아있던 부분들은 「미국놈도 믿을수없다」라는 부분들뿐만아니라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과정에서 갈등을 겪게됐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속에서 미국을 「적」으로 보는 개념과 「하나의 기대치」로도 보는 것이 섞여져 있던 상황이 있었읍니다. 이러한 갈등관계가 문학에 나타나있지 않다는점과, 항쟁지도부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바라보는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읍니다. 즉 민중들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70년대 상황에서 5.18이 보다 민중의 상황을 바로 보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점이지대를 찾지못하고 관념화된 압극단으로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정—중요한것은 「깃발」을 통해 광주항쟁의 의미부분이 문학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광주항쟁의 기원을 현장에서 뿐만아니라 한국사회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으로까지 확대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계급모순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족모순의 문제는 기법상 약간 무리가 있었던것 같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문학은 향토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선, 그리고 분단극복의 차원으로서 반미자주화운동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깃발」 같은 소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특별좌담

<참 석 자>

고 규 태 (시인)

정 도 상 (소설가)

현 준 만 (문학평론가—사회)

일시 : 5월12일 목요일 오후6시

장소 : 본사 조사자료실

오월문학은 맹아적으로 존재했던 반제적(反帝的)시각을 끌어내

80년대 광주항쟁을 통해 다시 정립되었던 것입니다.

▲현—예, 실제 반외세 자주화를 위한 움직임이 파행적인 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복류(伏流)되어왔던 현실 때문에 광주항쟁이 부각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명확히 말해서 광주항쟁은 민중이 중심이된 반제자주화 투쟁자체이었다는점에서 10월 인민항쟁, 4.3항쟁, 여순항쟁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봐야 합니다.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오던 신식민지에 대한 외세의 지배논리가 광주를 계기로 최초로 전면화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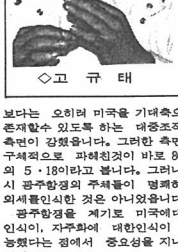
▲정—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해방3년의 공간속에서 미국부분의 복류는 「전반적인 외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60년대 70년대 상황들이 광주항쟁을 배태시킬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신식민지의 세계 재편구도가 국내에 전개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시대의 반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적(敵)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되었다기보다 더 허구적인 현실의 충격들을 파악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보다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유격적인 의미들을 넓게 포괄하는 시」가 더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문학보다는 연행에 술력이 가장먼저 그러한 상황을 수용해 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해 낼 수 없었던 것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가장 유연하게 반응해 내는 것들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행위와 가까운 예술장르부터 입니다. 때문에 몸에 가까운 연행,가슴에 가까운 시, 그리고 총체적인 산문의 순서를 거친다고 봐야겠죠.

▲현—시가 문학에 있어서 가장 유연하게 반응하기는 했지만, 광주항쟁을소재로한 초기의 작품들을보면 살아남은 자들의 죄의식이 지나치게 작용했던것 같습니다. 때문에 광주항쟁 직후의 시들을보면 감상적인 차원의 작품들이 많이 눈에띄입니다.

▲고—광주항쟁이후 80년대 초반의 시들을 보면, 광주의 학살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것은 매우 드물니다. 이같은 현상은 그저 그 제목부터가 엄청난 죽음의 현장을 노래한 김남주의 「학살」과 대조적이라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고 규 태

"김남주의 「학살」은 5월 시의 진수로써…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 일정정도 죄의식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지식인적인 입장에서 자기검열을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김남주의 경우 광주 인근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창살 밖으로 간접적이나마 체험했던 광주항쟁을 진수에 가까운 시들로 노래했다는 점은, 머이상 끌려갈 곳없는 김남주의 경우와 광주에 있었든, 없었든 간에 모든 살아남은 자들이 시로써 소화해 내는 양식과의 발로 동인지들의 문학형위가는에띄게 나타났죠. 그러나 「5월시」 동인지 1집을 보면 그 외도가 5월의 현장을 담아내고자 했음에도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전면에 숨은 상태에서 죽음이나 허무에 대한 이미지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읍니다. 이는 6.25나 4.19직후 대부분의 작품들이 인간성의 상실이나 작가의 허무적인 표현들로 일관 되었던 부분들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외에 기존에 등단했던 기성시인들과 운동적 관점에서 삶을살다가 새롭게 등단한 신진 시인들이바라보는 5.18의 입장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점도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있읍니다.

즉, 운동적 입장을 갖고 있다가 문학에 뛰어든 경우 민족운동사적인 의미에서의 5.18과 자연스럽게 접맥될 수 있었던 반면, 기존에 이미 등단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검열」을 통해서 지극히 「문학적」인 글들을 양산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현—그러나 백기완의 「나는 왜 밥을을 놓았는가」 등의 시들은 비조직적이고, 자연발생적이었던 기층 민중들이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통해 어떻게 변혁의 주체로 일어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고—70년대 문학과 80년대 문학의 차별성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선「객지」의 경우 주인공「동혁」의 생활자체는 계급적 관점에서 볼때 노동자이지만,전체적인 구도속에서는「합바」에서 생활하는 부랑노동자이기 때문에 그의 전반적인 생활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때문에 생활과 결부되어 있지않은 그는 더욱 자유스럽고 진보적일 수는 있지만, 글의 생명력이나 운동에 기여하는 부분은 극히 희의적 입니다.

또 김지하의「오적」에 나오는 「괴수」의 경우 그의 삶이나 그가 그 상황에 도달해야하는 필연성이 미약하죠.오히려「오적」들의 삶의 양태가 훨씬 자세하게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5·18을 겪고나서 민중이 주체로 섰던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문익환씨의 시처럼 머이상 밀리고 끌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최후의 양태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담보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죠. 이 상황속에서 이런 시들의 생산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그러면 그러한 상황속에서 왜냐하면 80년 후반기라는 현재적 상황에서 식민지내부의 민족모순을 올바르게 조망해 내고 분단마저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반미자주화의 소설이 진정한 5월문학을 계승할수 있기때문입니다.

◇현 준 만

"70년대의 「풍자냐 자살이냐」의 문제가, 80년대는「직설이 아니면 타살이다」로 대별되듯 문학에 직설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읍니다."

▲현—80년대 문학을 이야기할때에는 장르의 확산문제에서 빠져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깃발」의 경우 앞에서 「보고문학」적이기 때문에 더 생명력을 갖는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사실」 자체가 복원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점이 광주를 말할때 보고 문학의 비중을 크게 부각시킵니다.사실자체가 소설보다도 더욱 소설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는「사실문학」이라는 차원에서 수기나르뽀,증언록등의 장르확산에 대한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군요.

▲고—최초의 「보고문학」적인 작품으로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를 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전남사회연구소에서 썼던글을 정리하는 입장이었읍니다. 때문에 시간적인 사건진행의 구성이 공간자체의 평면화로 되어버리는 구조를 갖고있읍니다.

이외에 「광주항쟁증언록」이 나왔고 그속에 직접 참여했던 「시민군」이나 「일반시민」「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의 생활부분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책을 통해 사후에 얻은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때문에 자체치안유지를 해내므로서 민중들이자신이 쟁취한 권력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행아적인 모습을보여주었던것이죠. 여순, 4·3때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또한 광주항쟁의 처절하고 객관적인 전개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작품은 밝고 낙관적인 미래의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이러한점은 이 소설의 중심축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두고 있는점, 다시 말해 민중주체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는 점이 광주항쟁을 부정→패배라는 하 했기 때문이겠죠.

▲정—이러한 전반기가 최근 한 출판사에서 묶여져나온 「일어서는 땅」으로 매듭지어지고 후반기는 홍희담의 「깃발」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깃발」에서야 비로소 광주항쟁의 기원을 밝혀내려는 노력들이 보였기 때문이죠.즉 반미 자주화의 문제, 운동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깃발」의 경우 소설 자체의 문제를 도외시 할수는 없을것 같군요.

광주에 국한된 향토주의·소재주의 시각극복이 과제

오월문학,분단극복의 자주화문학으로 활성화돼야

70년대 민족적 리얼리즘이 80년대 전투적 리얼리즘으로 변화

우선 최소한 5년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획득해냈던 여러가지 사회과학적 인식들을 적용해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할수 있죠. 한편으로 보면 5·18 당시 한계, 혹은 가능성으로만 보였던 부분들이 철저하게 패배한 이후 다시 출발하여 싸워나가는 부분들이 강했었는데 이것들이 후대의 인식들에 오버랩되어 진행된것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이 한계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부분에 대하여 비파학적 시각부분들은 소설속에서 리얼리티를 상실해가는 주요한 모티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긴하지만 앞으로 문학의 새로운 전망을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5월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민중운동세력들의 집단적 희망을 볼수있고, 후반기 작품에 있어서 커다란 수확이라할수 있을것입니다.

▲고—전반기에서 임철우, 윤정모의 소설들을 언급했는데 전반기를 제가 보는 입장은 5월23일에서 강곡선의 형태가 아닌 미래의 승리를 향한 상승적 형식으로 그리게한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 대한 부분과 노동자계급주도의 문제등이 이 소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계급의 주체성, 독자성부분이외에 실질적인 주도성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광주항쟁에서는 뿌리한 접맥이 아니었다 하는 점이죠. 이 두가지 문제점중에서 미국문제에 대해서 서론점은 소설의 형상화가 미흡했다는 차원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의 입장에서 8년전의 역사적 사실을 바라볼때 역사적 사실의 해석은 리얼리즘 소설에서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작가가 지금쓰는 입장에서는 8년동안에 축적된 운동의 경험과정을 갖고 쓰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80년 5월에 미국문제가 현상화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제적(反帝的) 시각이 일반대중에게 자신의 소외된 부분들이 도식화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들어납니다.궁정적으로는 자기가 받아들였던,체험했던 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진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싸움의 장(場) 들속에서 파편화 되어있던 양태들이 평면적인 구조를 넘어 폭넓게 서술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김양오씨의 『광주보고서』라는 책에대해 언급을 하지않을 수없는데, 이책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숨길수없는 사건들에 대한 외미를 나름대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를 민족운동사적 관점에서 가 아닌 지역감정, 특정 정치인의 구속에의한 반작용에 광주항쟁의 기원을 종으로해서 사건의 필연내지 완전법칙를 시도한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단을 찾아나가면서 그 사건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 사실적으로 그려나가고 있기때문에, 이 사실적 기록들은 항쟁의 기원들을 왜곡시켜나가는 역효과를 낳고있읍니다.

▲고—1·18이후 8년동안 시,소설,연행등 모든것이 열람을 받은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그전모가 밝혀지면 문학의 흐름도 재편될 것이라 봅니다. 즉 문학측에서도 변혁의 입장과 보수의 입장이 현격하게 드러날 것이란 것입니다. 문예생산자들의 계급성이 드러나면서 그의 한계부분들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저역시 광주항쟁을 통해 변혁주체들의 올바른 설정이 현실화되었다는데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국한된 「향토주의적」 시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5월의 교훈속에서 그 시각을 확대시켜 나가야 보편 「광주」의 소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럴때만이 「5월문학」이 80년대와 90년대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문학으로 자리잡을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기록·정리:이성환기자〉

분단극복과 통일문화 <5>

하 창 래
〈북한연구소 연구원〉

북한문화의 재인식

북한의 문화정책과 문화혁명

Ⅰ. 머리말

문화란 일반적으로 생활양식의 총체를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라는 개념속에 포함되는 요소와 내용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일단 문화라고하면 특정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활양식, 즉 사고, 감정, 행동양식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에 한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사고방식, 같은 생활양식을 가지고 단일민족으로서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었고 동질성과 연대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40여년간의 분단으로 한민족의 동질적인 민족문화는 이질적인 정치이념과 상이한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질의 압극을 향해 점점 멀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북한문화의 실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문화」의 개념과 문화의 구조적 특징, 기능적 역할을 살펴본 뒤 북한에서 시행된 문화정책과 문화혁명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북한에서의 문화 개념과 특징

북한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 (財富) 의 총체」로 규정하고 문화를 「물질적 문화」와 「정신적 문화」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화라고 할 때는 「정신적 문화」를 의미한다고 하고있다. 그리고 문화의 범위를 「교육, 과학, 문학, 예술, 도덕 및 기타 정신생활 분야에서 이룩한 재부 (財富)」를 총망라시키고 있다. 또한 계급사회에서 정신문화는 계급적 성격을 띠며 역사상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는 노동계급에 의해 창조되고 노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는 「노동계급의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착취계급문화」는 착취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인민대중을 무저항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지게 하고 사회·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없게하므로 이른바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인 북한에서는 문화혁명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있다.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문화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혁명투쟁에 철저히 복무하는 것이어야 하고 혁명을 수행하는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는 당 (黨) 적인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서 북한문화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구조의 단순성을 들 수 있다. 즉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문화영역과 인간행동의 전부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들께,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문화구조가 함상 정치적 목적과 밀착되어 있다. 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전체와 개인의 이해가 일치함을 강조한다. 세째, 문화의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즉 이질적인 문화가 그들의 사회내부에 침습하여 점차할 수 없도록 경계하고 있다. 네째, 북한의 문화구조는 당의 지배하에 조성되며 모든 문화활동도 당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계급주의적 문화이다.

한편 북한문화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 문화는 당정책노선을 구현시키는 전위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군중문화사업」으로서 문화는 바로 정치현실의 수단이 되어 남북한 관계에서 대결적 사명감을 강조시키는 역할을담당한다. 또한 생산능력의 고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촉매수단으로써 활용되며 주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사상과 혁명이론으로 무장시켜 공고한 단결을 맺게 하는 통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Ⅲ. 북한의 문화정책

북한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사회주의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제35조)「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며 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제36조)라고 전제하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을 위해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 현실에맞게계승」하며, 「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시킬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결합하여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론체계는 이미 스탈린에 의해 제시된바 있다. 스탈린은 「사회주의적인 프롤레타리아 문화는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여러 민족에게 있어서 언어와 생활풍습등의 상이에 따라 각각 다른 표현 형식과 방법을 가지게 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적이며 형식에 있어서는 민족적인 문화, 이것이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문화」라고 하였다.

북한은 스탈린의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론에 입각하여 문화정책의 기본섭격을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간단히 말하여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혁명사상, 그리고 계급성과 집단주의에 입각한 사상, 사고방식, 생활양식을 총망라하는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은 제5차 당대회 (1970. 11) 에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래문화, 특히 자본주의 제국주의 문화의 침투와 복고주의의 경향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복고주의」는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와 노동 계급적 원칙을 떠나서 지난날의 것을 되살리며 찬미하는 반동적 사상의 조류」라고 규정짓고 이를 허용할 경우 지난날의 불건전한 문화가 대두하게 되고 또 인민들의 의식 속에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 봉건적인 유교사상등 낡은 사상이 솟구치게 된다고 하고있다.

북한은 이와같이 일체의 서구문화의 수용을 거부하고 「북한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문화혁명의 기치하에 주민의 사고, 감정, 행위양식과 생활양식을 개조, 변혁시키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혁명을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혁명」이라는 용어는 본래 레닌이 창안하고 빈번히 사용하였다. 레닌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에서문화건설과 문화의 역할을 10월 혁명 직후부터 계속 강조해왔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하여」(1923. 1) 라는 논문에서「문화혁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한 문화혁명 없이는 완전한 협동조합화 (사회주의의 기초작업) 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레닌은 전국민 특히 농민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여 문맹과 문화적 후진성을 청산하는 문화혁명은 「완전한 협동조합화」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보고 이것을 사회주의혁명 내용의 일부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후에 스탈린과 모택동도 「문화혁명」을 빈번히 내세웠으며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구호를 가지고 있다.

소련의 경우 1930년대 농업집단화의 완성에 따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된후 비로소 「문화혁명」을 제창하였다. 중공에서는 소련과 같이 「문화혁명」과 같은 혁명의 범주를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면홍기 (三面紅旗), 사회주의 교육운동, 문화대혁명 등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화혁명이 요구하는 내용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어와 표현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문화혁명노선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왔다. 초기에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채 다만 문화의 제고를 강조하였다.

1953년 8월 5일 김일성은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근로대중의 문화적 수준이 낮은데 대한 요인을 제국주의의 통치와 침략이라는 근거에서 분석하면서 당중앙위원들에게 다음과같이 촉구하였다. 「노동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하며… 노동계급의 의식수준과 그들의 문화, 기술수준을 높이 지양고서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없음니다」

북한에서 문화혁명의 필요성이 제계적으로 역설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8월경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이후이다.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책동에 의해 「계급투쟁」「생산투쟁」「과학실험」이라는 3대혁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는 정풍운동을 역설하는 의사표시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실에서 볼때 북한이 3대혁명을 내세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중공의 3대혁명을 참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혁명」등의 3대혁명은 그후 공업부문에까지 확대되어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과업으로 되었다. 즉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는 4차내각의 기본과업으로 10대정강을 발표했는데 그 정강에서 문화혁명을 기본적 혁명과업으로 규정하였던것이다.

그리고 1970년 11월 노동당제5차 대회에서는 「문화혁명」등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기본노선이라고 밝힘으로서 당의 확고부동한 기본노선임을 재천명하였다. 1972년 12월에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문화혁명을 법적으로 고착시켰다.

이후 「문화혁명」등의 3대혁명을 강령하기 위한 추진세력으로서 1973년 2월에 「3대혁명소조」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었고, 1975년 12월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경취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3대혁명소조」의 구성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권기관, 경제기관, 사회단체, 과학기술부문의 간부 및 청년인텔리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 90퍼센트가 청년인텔리들로 조직되어있다. 또한 「3대혁명소조」의 역할은 현지 간부들이 지니고 있는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등을 비롯한 「낡은 사상」과 투쟁하는 한편, 「수준이 낮은데다가 실무에바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배워주며 실천을 통하여 현대과학의 위력을 보여주는데 있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대혁명소조운동」은 단지 3대혁명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 간부들을 현지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조직화하고 혁명화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Ⅳ. 북한에서의 문화혁명 전개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문화혁명을 한마디로 문화혁명의 기치하에 주민의 사고, 감정, 행위양식과 생활양식을 개조, 변혁시키려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통치와 침략이라는 근거에서 분석하면서 당중앙위원들에게 다음과같이 촉구하였다. 「노동자들 속에서 정치사상사업과 군중문화사업을 강화하며… 노동계급의 의식수준과 그들의 문화, 기술수준을 높이 지양고서는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없음니다」

북한에서 문화혁명의 필요성이 제계적으로 역설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8월경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이후이다.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책동에 의해 「계급투쟁」「생산투쟁」「과학실험」이라는 3대혁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는 정풍운동을 역설하는 의사표시이기도 한데 이러한 사실에서 볼때 북한이 3대혁명을 내세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중공의 3대혁명을 참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혁명」등의 3대혁명은 그후 공업부문에까지 확대되어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과업으로 되었다. 즉 196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4기 1차 회의에서는 4차내각의 기본과업으로 10대정강을 발표했는데 그 정강에서 문화혁명을 기본적 혁명과업으로 규정하였던것이다.

글싣는 차례

1. 연재를 시작하며
2. 분단지전 한반도의 문학흐름
3. 한국전쟁후 문화의 이질화와 민중문화
4. 북한문화의 이해
①문화노선의 기본틀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②해방후 문화정책과 문화혁명
5. 분단극복을 위한 문화의 새로운 논의
6. 통일을 위한 문화, 예술운동의 위상

문화정책의 기본성격을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로 규정하며, 혁명사상을 강조

압제의 그늘 밑에서

—「무기의 그늘」황석영작, 형성사

한 선 미
〈문리·철학 4〉

學軍 士官 候補生 募集
(R. O. T. C)

●募集人員 : ○○名
●志願資格
· 88年度 4年制大學 2學年 在學生
· '67. 1. 1～'71. 3. 1 出生者
(18歲～22歲 未滿)
· 將校 任官 缺格事由 없는 者
●志願書 交付 및 接受
· 期 間 : '88. 4. 10～5. 21
(學軍團本部)
· 具備書類

지 원 서 접 수 시	신 체 검 사 시
· 지원서및 서약서…… 1부 · 입학증명서 및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호적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진 (4×5㎝)…… 2매 · 장기및 복무연장자는 사진…… 5매

●選 拔 : 大學成績, 身體檢査, 體力檢定, 面接
●合格者發表 : 1989년 2월 23일
●特 典
· 無試驗 選拔
· 少尉任官, 中尉轉役 또는 服務延長, 長期服務
· 義務 服務 期間 : 2年 3個月 (將校中最短期)
· 候補生間 學費補助, 寄宿舍 提供 (一部大學)
· 希望 및 專攻學科 考慮 兵科分類 補職活用
· 轉役時 職業補導實施
· 大企業體 學軍出身將校 優待選拔및 處遇
●問議處 : 學軍團 本部 (962—7124, 965—7001 교환 2412)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19학생군사교육단장

전반기 예비군 기본교육
(서울캠퍼스)

아래와같이 예비군 기본교육을 실시하니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것

아 래

1. 통지서배부
1) 주간학부 : 비상계획관실 (예비군 연대본부)
2) 각대원및 야간강좌 : 해당교학과
2. 대학별 교육일정

교 육 일 시	교 육 대 상	집결장소
5월18일 (수) 8시—17시	각 대학원	대강당
5월19일 (목) 8시—17시	상경대, 정책과학대, 철학과, 교직원	
5월20일 (금) 8시—17시	종앙어대, 법대, 사범대	
6월3일 (금) 8시—17시	야간강좌 (학부)	
6월4일 (토) 8시—17시	서양어대	

3. 유의사항
1) 교육 비대상
○88년도 전역한 예비군전원
○소집면제자 (미필보충역) 전원
○병정관리 요원 (병및 일반하사 : 53.54년생) 전원
○전역 9년차 이상 병및 일반하사 (1980년 이전 전역자)
* 9년차 이상은 년간 8시간으로 후반기 교육 대상임
2) 교육당일 예비군복을 지참하고 7시50분까지 집결
3) 예비군복은 교육장에서만 착용하고 복장 불량자및 지각자는 귀가조치
4)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정 변경을 요하는 자는 교육개시 5일전까지 예비군본부에 상의할것 (본인 임의로 일정변경은 불참처리함)

1988년 5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

전반기 예비군 기본교육
(용인캠퍼스)

88년도 전반기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전원 참석토록 할것

아 래

1. 일 시

교 육 일 시	교 육 대 상	비 고
6월1일 (수) 9시—18시	교직원, E, F, G, R, S, I, Ru, Pl	1, 2중대
6월2일 (목) 9시—18시	P, C, J, M, A, Th, Sh, H, 문리대, 사회과학대 전원	3, 4중대

2. 교육 장소 : 용인캠퍼스 대강당
3. 교육 대상 : 용인캠퍼스 교직원 및 예비군 전원
4. 복 장 : 예비군복 (훈련시에만 착용)
5. 훈련면제자 :
○88년도 전역한 예비군전원
○소집면제자 (미필보충역) 전원
○병정관리 요원 (병및 일반하사 : 53.54년생) 전원
○전역 9년차 이상 병및 일반하사 (1980년 이전 전역자)
* 9년차 이상은 년간 8시간으로 후반기 교육 대상임
6. 주지 사항 :
1) 지각자, 복장위반자 귀가조치
2) 중식 개인지참
3) 금번 교육은 2일에 나누어 실시하니 대상자는 필히 해당학과 교육일에 참석할 것.
4) 기타 상세한것은 예비군본부에 문의 할것.
*대상자 전원은 88년도 5월18일—5월25일간 예비군본부에서 교육훈련 소지통지서를 수령할 것.

1988년 5월 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장예비군대장

제13회 전국 대학생
연구논문 발표회

1. 대상분야 :
인문, 사회 (새마을분야포함) 기초과학, 응용과학, 농수해양, 의·치·약학분야
2. 참가자격 : 4년제대학 재학생
3. 신청방법 :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별 신청
4.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통
(대학 학생처에 양식비치)
●논문원고 2부
(인문, 사회……400자원고지 35매이내
기타분야……400자원고지 25매이내)
●논문초록 2부
(인문, 사회……400자 원고지 3매이내
기타분야……400자원고지 2매이내)
5. 접수마감
●참가신청서제출 : 1988. 6. 30(목)까지
●논문원고및 초록제출 :
1988. 9. 15(목)까지
6. 시상내용

최우수상	분야별 1명	문교부장관상및 장학금100만원과 단기해외연수
우 수 상	분야별 3명	대회장 상및 장학금50만원
장 려 상	분야별 8명	대회장 상및 장학금20만원

7. 발표회일시및 장소 : 추후 통보
8. 과제당 발표시간
●인문, 사회…발표15분, 질의및 응답10분
●기타 분야…발표10분, 질의및 응답10분
9.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학 학생처및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관리부
(전화 : 741—6430/9)에 문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복학과, 「서자」일수만은 없다

종합외대를 위한 모색 — 제2캠퍼스체제를 위한 대안 —

<5>

15개 중복학과 문제해결 시급

지역학 도입통한 단대분리가 가장 효과적

증과를 위한 비대학과의 정원 조정필요

Ⅰ. 머릿말

80년 「용인본교」로 출발해 「용인대학」을 거쳐 현재의 4개단과대학 (인문과학대 제외) 에 29개학과 약 5천명 (금년 1학기 등록생수 4천9백50여명) 의 결코 적지않은 학생을 보유하기까지 양적팽창을 거듭해온 용인캠퍼스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제2캠퍼스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그 기능을 수행할 때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용인캠퍼스는 지방캠퍼스가 안고있는 구조적 모순및 본교의 불합리했던 제도적 편제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축소약화돼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로인해 서울 캠퍼스와의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제2캠퍼스」가 아닌 종속된 「분교」로서 취급받고 위치지워져왔던것 또한 부인못할 현실이었다.

이에 본기획에서는 지난 489호를 통해 용인캠퍼스의 실질적인 제2캠퍼스 도약을 위한 발전으로 캠정체제및 교통문제를 포함한 제반복지시설개선등에 관해 살펴본데 이어 어문계열학과의 지역학도입을 통한 커리큘럼 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과, 단대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서울·용인 양캠퍼스에 공존하는 15개 중복학과 문제의 해결과 과, 단대신설및 새로운 편성을 중심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Ⅱ. 중복학과 문제

1. 중복학과가 주는폐해

중복학과란 한 대학내에 커리큘럼과 명칭이 동일한 학과가 2개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70년대말 서울소재 대학들의 지방캠퍼스 건립당시 재정적 뒷바침이 필요없는, 즉 이미 서울캠퍼스에 설치되어있는 학과에 단지 교수인원만을 충원한 채 학문적 발전및 그 캠퍼스가 위치한 지방의 문화, 풍속, 산업발달정도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계획속에 학과를 신설해 존재케 된것이다.

한 대학내에 동일과가 2개 존재한다는 것은 일단 상식선상에서도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인데 이러한 중복학과존재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따른 직접적 피해당사자 혹은 심적피해외식 소유자는 서울캠퍼스학생 보다는 지방캠퍼스소속 학생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지방캠퍼스」라는 일정정도의 열등감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서자」라는 의식으로 발동해 애교심, 정착심, 자긍심등의 저하로 소속대학및 캠퍼스의 양적·질적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해왔다.

용인캠퍼스 영어과 3학년에재학중인 박모군은 『바깥에서 누가 어느대학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외대 영어과 다닌다고 말하지 외대 용인캠퍼스 영어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며 『용인캠퍼스라고 밝히는 것이 내심 부끄러운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서양어문대학 독일어과 2학년인 박모군 또한 『사람들이 외대다닌다고 하면 대부분이 서울캠퍼스로생각한다』며 『용인캠퍼스가 생긴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용인캠퍼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위의 경우에서도 쉽게 알수 있듯이 중복학과가 낳는 모순점은 지방캠퍼스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의식, 소외감조장및 주체의식, 소속감결여를 유발시켜 크게는 소속대학, 작게는 소속캠퍼스 발전이라는 당위적 사명및 근본명제를 위배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반해 사학과 3학년인이모군의경우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외대사학과 학생입니다』라는 한마디에서도 나타나듯 용인캠퍼스에만 존재하는 학과의 소속학생들은 전혀 열등의식을 갖지 않는것이 사실이며 이는 본교뿐만이 아닌 타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중복학과로 인한 폐해는 졸업후 취업시에도 파생되는데 서양어문대학 서반아어과를 졸업한 김모군은 이에대해 『재관적으로 볼때 실력이 뛰어난 학생인데도 본교라는 이유만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며 지방캠퍼스출신 학생에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지적, 『중복학과 출신들은 남달리 입는피해가 매우 크다』고 호소한다.

위에서 언급된 몇가지외에도 정통성문제, 편제상의 불합리한 요소로 인한 우수신입생유치불가, 불공평한 취업추천서 배부등 중복학과로 인한 모순점 파생은 외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으며 이의 해결은 절실하며 시급하다 하겠다.

2. 중복학과 해결방법

중복학과의 문제의 해결가능방법은 「통폐합」 「계열화를 통한 이원화」 「명칭변경」등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볼수 있다. 첫째, 통폐합은 본교의경우 80년 용인캠퍼스 건립당시 학교측 마스터플랜과 85년 약속사항에 의하면 서울캠퍼스의 용인이전을 통한 통폐합으로 자연히 중복학과 문제를 해소할 수있다고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백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고, 마스터플랜이 계획대로 이행된다고가 정해도 그 시기를 2천년대로 규정하고 있을뿐 명확한 시기제시가 없으므로 「이전통합」 전까지는 통일과가 아닌 개별학과보서 독자적 발전을 꾀함은 당연하다.

또한, 「완전이전」이 실행된다해도 서로 차별성있게 존재(예 : 영어과, 영미지역학과) 하게 되므로 문제의 여지는 없을것이다.

둘째,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처럼 계열별로(서울—인문사회과학캠퍼스, 수원—자연과학 캠퍼스) 캠퍼스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있을수 있다. 본교의 경우 자연계열의 학과가 극히 적어 인문, 자연계열로의 캠퍼스 분리는 자연계학과의 보다많은 증과가 이루어질때 가능하나 문교부의 수도권대학정원통결에서 지역학에 대한 구체적논의가 시작된 것은 작년 학원민주화투쟁기간중이었으며 그당시 제시된 지역학은 중복학과 해소를 위한 방편이 아닌 실용학문탐구등을 주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학생들에 의해 주장되어졌다.

서양어문대외경우 「서양지역연구회」를 5월16일 (월) 결성해 지역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작업에 착수했는데 이에대해 학생회장 김양수군 (영어3)은 『국제문화교류및 발전을 도모한다는 우리학교의 교육이념에도 지역학은 부합된다』며 『지역학도입을 통해 기존 서울캠퍼스에 설치되어있는 학과와전혀 차별성없이 진행된 어문학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국제화시대속에 부응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한다.

현재 동·서양어문대학의 경우 자의적으로 단대명칭을 동·서양학대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단대지및 대자보등을 통해 「지역학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구성됐던 교수협의회산하 용인 캠퍼스 교육개선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자 교과과정 연구위원인 이은진교수 (사학과) 는 『지역학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돼왔으며 용인캠퍼스 어학과 신설당시에도 지역학과보 서울캠퍼스와는 상이하게 편제시킬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교수충원등 미해결과제가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무산되었었다』라고 밝힌다.

또한 이교수는 『원칙적으로 지역학도입을 통한 용인캠퍼스의 독자적 발전에는 동의하나 현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교수들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이는 학교정책적인 차원에서 논의, 연구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학」도입은 13개 중복어학과 문제해소의 지름길이라는 점과 실용적학문탐구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평가된다.

즉 지역학이 도입될 경우 서울캠퍼스 동·서양어대 학과는어·문학을 중점적으로 교수하는 어학과로, 용인캠퍼스 동·서양어문대학 소속학과는 지역학도입을 통한 단대명칭변경및 과명칭변경 (예 : 영어과→영미지역학과) 과 단대재편으로써 중복학과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것이며 또한실용학문추구로 인한 실이득을 취하게되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수있다.

그러나 지역학에 대한 학교측 논의수준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며 용인캠퍼스 학생들의무관심및 지역학 전공교수충원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역학 도입의 당위성을 인식한 이의 해결방안 마련만이 그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할수 있을 것이다.

<표>

어학계				비어학계			
단대	학과			단대	학과		
서양어대학	영어과	미국어학과	(지역)영어학과	서양어대학	불어과	불문학과	(신설)
		영국어학과	(지역)영어학과			불어학과	(신설)
		영문학과	(지역)영어학과		독어과	독문학과	(신설)
		영어학과	(지역)영어학과			독어학과	(신설)
	독일어과	독문학과	(지역)독어학과		서반아어과	서문학과	(신설)
		독어학과	(지역)독어학과			서반아어학과	(신설)
	서반아어과	서문학과	(지역)서반아어학과		러시아어과	러문학과	(신설)
		서반아어학과	(지역)서반아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신설)
동양어대학	중국어과	중국어학과	(지역)중국어학과	동양어대학	일어과	일문학과	(신설)
		중국문학과	(지역)중국어학과			일어학과	(신설)
	일어과	일문학과	(지역)일어학과		아랍어과	아랍문학과	(신설)
		일어학과	(지역)일어학과			아랍어학과	(신설)
동구어대학	불가리아어과	불가리아문학과	(지역)불가리아학과	광고홍보학과			
		불가리아어학과	(지역)불가리아학과	경영대	경영학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체코슬로바키아문학과	(지역)체코슬로바키아학과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체코슬로바키아어학과	(지역)체코슬로바키아학과			행정학과	
	헝가리어과	헝가리문학과	(지역)헝가리학과			정치외교학과	
		헝가리어학과	(지역)헝가리학과		법대	법학과	
					사범대	교육학과	
						체육학과	
					자연과학대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과대	전자계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산업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과	

어학계열학과의 명칭선정<예 : 영미(지역)학과>은 본사가 그동안 학내에서 제기된 것이며 가칭이다. 또한 신설학과는 기존학교측의 문교부에 제시한 증과계획표대로 임의적으로 설정했다. 신설학과등 서울캠퍼스와 중복되는 학과들은 적절한 명칭이없어 위의명칭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Ⅲ. 양적팽창을 통한 제2캠퍼스화 모색

정부의 수도권대학 정원통결이라는 정책하에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으며 변칙적으로 증과, 증원의 양적팽창을 이룬 용인캠퍼스는 이제 5개 단대에 5천명의 학생을 수용한 외형상으로 나마 어엿한 캠퍼스로서 자리잡게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진정한 제2캠퍼스로 위치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된다.

이는 서울캠퍼스의 증과, 증원이 완전 동결된 현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때 서울캠퍼스가 실질적인 종합대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채 기존 단과대학및 학과(7개 단과대, 49개학과) 보유로 어학교육의 산실이며 「정예부대」양성을 위한 요람으로서 그 성격이 불가피하게 변모되었다고 상정한다면 용인캠퍼스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써 학문연구와 교육을 전념케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마냐이어과로 분리되고 유고·헝가리·체코어과등 3개과가 신설돼 동구어계열 학과들의 도약을 위한 틀부림은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기존5개학과 외의타 동구권 어학과의 신설이 뛰따를지는 의문이나 서양어계열의 학과증에서도 동구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독자적인학문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동구어대학 (가칭) 의 단대분리는 필요한 것이다.

2. 사회과학대의 경상대학으로의 분리

현재의 사회과학대를 경제·무역·경영정보학과의 경상대학과 사회학과및 행정, 정치외교학과의 신설을 통한 사회대로의 개편또한 인문·사회계열학대라는 측면에서 제2캠퍼스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3. 문리과대학의 이과대학과 이공대학으로의 개편

전산, 화학, 수학, 물리학과의 이과대학과 기계공학, 전기공학등 최소한 4개학과 이상의 신설을 통한 공과대학 편제는 어문·인문·사회계열위주인 본교 계열편성의 불균등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이외에 인문대에 심리학과, 도서관학과등의 신설또한 상정할수 있는데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대로 8개단과대학40여개 학과가 설치될 경우 중대안성캠퍼스 (7개대학 32개학과), 정희대 수원캠퍼스 (6개대학 33개학과) 등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실질적인 종합대학의 외형을 갖추게 된다.

물론, 증과, 증원이 현 정부시책을 감안할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질적수준을 고려치않는 무분별한 양적팽창도모라는 두가지 외문점이 생기나 이는 정원이 1백여명을 초과 혹은 선회하는 영어·불어·독어과등 몇몇 비대학과의 정원을 감소해 적절히 배분하면 전혀 불가능한 제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또한 첨단학과및 시대조류에 맞는 인기학과 신설등이 전제된다면 이에따른 질적저하라는 우려도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다.

글 싣는 차례

Ⅰ. 시리즈를 시작하며
Ⅱ.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안
Ⅲ.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살펴본다
Ⅳ. 용인캠퍼스, 제2캠퍼스인가 분교인가
1. 행정체제 격상및 개선되어야 복지문제
2. 제2캠퍼스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몇가지 방법
Ⅴ. 고전(古典)이된 커리큘럼 전면적 수정을 요한다
Ⅵ. 교수·강사진유치와 이를 위한 복지개선

「독자의 소리」 원고모집

도서관에서의 졸건분실, 교직원과의마찰, 학생들간의 의견대립….

외대라는 좁다면 좁고 넓다면 넓은 공동체속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점들이나 미담 (美談) 을 본보에서는 「독자의소리」 난을 설치하여 게재하고있읍니다.

매수제한없이, 되도록 짧은글들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낼곳 : 외대학보 학생기자실—서울 : 학생회관203호 용인 : 학생회관212호

독자의 소리

강의들리지않아 불편 마이크 설치해줬으면

학생회관건물의 모든강의가 폐지 되므로써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의 영어강독 수업이 대학원 6001호에서 열리고있다. 우리가 영어강독 수업을 받고 있는 6001호는 학생을 약 150명가량 수용할수 있는 큰교실이다. 그런데 이 큰교실에 마이크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수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있다. 교수님은 목청을 높여야하고학생들은 소리가 퍼져서 알아듣기가 힘든다. 게다가 교수님이 학생들 가운데 서서 수업을 하면 앞에앉은 학생들은 교수님과 등을 맞대고있는 꼴이되어 집중력이 떨어진다. 교실에 마이크시설의 설치등 시설의 보완을 통해 원활한 수업을 할 수있었으면한다.

<정과·정외1 안창헌>

명수당주위 매우 불결 휴지통 설치해야

버스를 타고 학생회관앞에서 내려 어린학관이나 교양학관 그리고 명수당근처에 가다보면 길가가 매우 지저분함을 느낀다.

담배꽁초, 휴지, 과자봉지등이 널려있어 지저분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물론 용역아저씨들이 매일 청소를 하시지만 학교가 넓고,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다보니 청소를 해도 더러운것은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자세히 보면 학생회관앞에서 어린학관까지 가는동안 휴지통을 설치해놓은것을 찾아볼수없다. 학교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학교환경개선에 도움이 될것같다. 조만간 휴지통설치를 기대해본다.

<등문·스와힐리어3 정철구>

도서관자리 절대부족 효율적 이용필요

머칠전 도서관을 갔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인지 자리가 거의차 있었다. 혹시 빈자리가 있나 하고 찾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옆에 빈자리가 있다고 가르쳐줘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잡았다.

갈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우리 학교 도서관은 학생수에 비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측은 최소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헛걸음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 시험은 없고 가방과 책만이 어새하게 자리한 빈자리를 많이보게 된다. 자리에서 잠시간 떠나게되면 몇시까지는 자리에 없다는 쪽지라도 남겨 놓았으면 한다.

또한 도서관 지정 좌석제 같은 제도를 통해 효율적 자리배치를 했으면 한다.

<법·법과1 정일권>

학교의 변

○…488호 「후문폐쇄로 불편」 제목의 기사에 대해 안내실측은 평일에는 오후10시까지 후문을 개방한다고 설명하고 휴일에도 작은 문을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휴일의 개방시간은 안내실 사정에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488호의 「용인학생회관지한 교수실용도」에 대해 체육교수의 탈의실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탈의실」이라는 표시판도 없이 백폭글씨로 「교수대기실」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체육시간외에 거의 사용되지 않아 효율적 이용이 요구된다.

태산이높다하되하늘아래메이로다
오르고또오르면못오를리없건마는
사람이제아니오르고메만높다하더라

옛 시조에서 다시 배우는 패기의 참 뜻.

조선전기 4대 서예가중 한사람인 양사언 (楊士彦 : 1517~1584)이 지은 귀에 익은 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메(외)만 높다 하더라」.

이 시조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고 큰 소리로 다가와 패기의 참 뜻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읍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점점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사회에서 세계와 당당히 겨루어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기입니다.

패기는 일과 싸워서 이기는 기질로서 선경에서는 사고방식, 행동방식, 일처리 방식 등 3가지로 나누어 훈련하고 있읍니다. 즉 사고는 적극적으로, 행동은 진취적으로, 일처리는 빈틈없고 야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패기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식과 함께 패기를 고루 갖춘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SUNKYONG
선경그룹

(旧선경합섬)
(주)선경·(주)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주)동국상사·유공해운

설치되어야 할「의료 공제회」

학내보건소의 1차 진료기관화를 위한 시설 확충절실

동부지역 연합 의료공제회 건설로 설치상의 문제 극복가능

본교의 학생의료보장제도가 미흡해 본교생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재 서울·용인 양캠퍼스에 각각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6조 3항의「대학(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교의 (學校醫) 1인및 학교약사(學校藥師) 1인을 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못미치고 있다.

즉, 각캠퍼스에 간호원 자격을 지닌 직원 1명만을 두고있으며 건강상담, 응급처치, 투약 등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재 법에 규정된 직원마저 확보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부상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방안을 보면 교내행사중의 부상에 대해서는 통원치료시 10만원까지 입원치료시 30만원까지 지급하며, 의료실을 경유하여 지정병원인 위생병원(서울캠퍼스) 을 재학생이 이용할경우 20%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그기준이 서울·용인캠퍼스에 차이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4일(수)서양어문대학 학생회주최 마라톤대회도중 쓰러진 남모양(서문·헝가리어1)은 세브란스병원 (용인캠퍼스 지정병원)으로 이송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이에대해 학교측은 행사도중 부상에관한 치료비약3천원의 1/4선지급을 주장하고나왔다.

이는 사전, 학교측의 치료비 부담의 분명한 기준, 학교지정병원이용시의 혜택등에 대한 통보전무에서 온 결과로 책임성이 결여된 행정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에대해 「학생복지위원회」는 88년도 주요목표중 학생의료보장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의료공제회」를 설치한 각대학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자료를 토대로 외래의 상황과 비교분석중이며 5월중 본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실제적인 의료공제회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방침이다.

학생의료보험제도는 치료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다수의 건강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학생의료보장제도는 1차 진료가 가능한 「학내보건진료소」 설치와 「의료공제회」 건설을 통한 의료보험실시로 크게 나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의료공제회」를설치, 학생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대등 5개교에 달한다. 학생의료공제회는 실시내용상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의료보험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좀더 저렴한 회비로 혜택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있다.

연세대는 76년 「연세의료공제회」를 설치, 학내보건진료소의 확대와 의료공제제도를 실시하고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보면 지정병원(교내보건진료의 전국 8곳)에서 입원시 치료비 100%를, 여타병원의 경우는 70%를 혜택받고있다. 여기에 따르는 치료비는 공제회에서 모두 부담한다.

86년 2학기부터「의료공제회」가 시작된 고려대는 일반의료보험과 이중가입자의 이중수혜혜택, 질병으로 인한 휴학시지속적인 회원자격유지등 타대학의 많은 난제를 극복, 운영하고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업무도 확충시켜 외사1명이 상주하며 각「전문외」의 요일별 순회근무로 1차진료기관으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때문에 교내에서 전문야에 걸친 치료와 건강진단이 가능하며 X-ray촬영기특등 전교생의 건강관리를 해내고 있다. 특히 주재외사가 없는 고대서창캠퍼스은 타대학보다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난방가동시 스팀록의 자리와 맞은편 좌석의 온도차가 심해 최적학습온도 18℃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냉방시설의 경우 학생들이 에어콘작동을 쉽게 조정할수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5층 열람실은 아직까지도 이동식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에어콘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호흡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다소등의 유해가스와 먼지로 인한 연람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지적, 각 열람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관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람실내 소음방지용 바닥재료 설치는 10여년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로 몇년전 소음방지를 위해 1·2·3열람실 중앙통로에 고무바닥을 설치한바있다. 그러나 고무바닥은 위생도가 뛰어난편이나라 청소불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학교측은 시범적으로 제1열람실 전체에 「모노틀」을 깔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실행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도서관이용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안된 도서관 시설보완및 개선방안은 1학기 1/2선이 넘는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전무하고, 조명증설 정도의 계획만이 검토있을 뿐이다. 한 도서관관계자는 『모든사항에 대한 더 좋은 방안들을 신중히 연구, 검토중입니다』라며 『모든 일을 연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며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누적된 도서관의 시설개선은 이제 연구검토의 차원에서 머물거나 미루어져서는 안될것이다.

도서관은 대학의 근본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장으로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도서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도서관 담당자의 책임성있는 노력과 학교당국의 행정적 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국수경기자>

도서관 시설 보완은 언제쯤…

조명 증설 계획외에 개선 방안 전무

지난해 학원민주화투쟁기간중 단과대학학생협의회 (이하 단협) 가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측에 제시한 「도서관 시설보완및 개선방안」이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서관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 각층 로비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나오는 소음을 들수있다. 도서관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단협은 해결방안으로 도서관 3층과 4층 로비에 휴게실(금연실) 과 흡연실을 따로 마련할 것을 도면과 함께 학교측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서관 사서장은 『우선적으로 도서관 3층에 휴게실과 금연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을 경우 4층까지 시설보완을 할 예정이다』라며 계획을 밝히고 있을뿐이다.

또한, 조명시설보완도 요구된 바 있는데, 이는 형광등 바로 아래쪽의 조도는 290Lx, 열람실 구석자리는 230Lx로 도서관 열람실 용도의 조도범위인 300~700Lx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학습능률과 눈의 피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명시설 보완공사를 학교측은 이번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개방시간이 짧은 과제실과 참고실의 공사는 학기중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각 열람실은 방학중을 이용, 조명증설을 할것이라고 밝힌다. 이와 아울러 학교측은 조명도 하락의 방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도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본교 열람실의 냉·난방시설은 타대학보다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난방가동시 스팀록의 자리와 맞은편 좌석의 온도차가 심해 최적학습온도 18℃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냉방시설의 경우 학생들이 에어콘작동을 쉽게 조정할수 있어 큰 문제는 없으나, 5층 열람실은 아직까지도 이동식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에어콘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호흡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다소등의 유해가스와 먼지로 인한 연람실내 공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지적, 각 열람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관 전문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람실내 소음방지용 바닥재료 설치는 10여년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로 몇년전 소음방지를 위해 1·2·3열람실 중앙통로에 고무바닥을 설치한바있다. 그러나 고무바닥은 위생도가 뛰어난편이나라 청소불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학교측은 시범적으로 제1열람실 전체에 「모노틀」을 깔아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실행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도서관이용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안된 도서관 시설보완및 개선방안은 1학기 1/2선이 넘는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전무하고, 조명증설 정도의 계획만이 검토있을 뿐이다. 한 도서관관계자는 『모든사항에 대한 더 좋은 방안들을 신중히 연구, 검토중입니다』라며 『모든 일을 연차적으로 해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냐』며 반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누적된 도서관의 시설개선은 이제 연구검토의 차원에서 머물거나 미루어져서는 안될것이다.

도서관은 대학의 근본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장으로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도서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며, 도서관 담당자의 책임성있는 노력과 학교당국의 행정적 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국수경기자>

움직임

<교수동정>

▲이기상 (철학과) : 「철학과 종교」 —현대의 종교철학적 논쟁번역서 4월30일 서광사

〈 서울캠퍼스 〉

▲부산동인고 : 5월18일(수) 상징탑 오후 5시

▲충신고 : 5월18일 (수) 분수대 오후 5시 회비 : 3천원

〈 용인캠퍼스 〉

▲진명고 : 5월17일 (화) 면수탑오후2 오후 5시

▲고려·상경고 : 5월 19일 (목) 학생회관 식당 오후 5시30분

▲대전대신·북고·동방여고 : 5월19일 (목) 학생회관식당 오후 5시30분

▲중앙고·대전고·대전여고 : 5월19일 (목) 교양학관 휴게실 오후 5시

▲휘문고 : 5월20 (금) 학생회관 식당 오후 5시30분

▲경복고 : 5월20일 (금) 어문대다방 오후 5시30분

〈 영화상영안내 〉

◇서울캠퍼스

—시청각비데오룸 (2202호)

▲5월18일 (수) : 오후 2시 「사넬(Chanel) 오후 5시 「코러스 라인 (A Chorus Line)」▲ 월19일 (목) : 오후 2시 「코러스 라인 (A Chorus Line)」 오후 5시 「사넬 (Chanel) 」▲ 5월20일 (금) : 오후 2시 「샤넬 (Chanel) 」 오후 5시 「코러스 라인 (A Chorus Line) 」

◇용인캠퍼스

—어문대 영사실 (1412호)

▲5월17일 (화) : 오후 1시 30분 「탑건(Top Gun)」▲ 5월 18일 (수) : 오후 1시30분 「해바라기」▲ 5월19일 (목) : 오후 1시30분 「맨법」

〈 타대학행사 〉

▲서울여대 : 제33회 정기공연 「위선자」 —따르뛰프작 5월18일 (수) 19일 (목) 오후 6시, 20일 (금) 오후 3시·6시 장소 : 소극장 주최 : 서울여자대학 극예술연구회

마인어과 체육대회 개최

서울·용인캠퍼스 마인어과는 5월24일 (일) 오전10시부터「메르데카」배 체육대회를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갖는다.

이날 행사로는 체육대회와 신후배 대면식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독교과, 창립 20주년기념 행사

독어교육과 창립20주년 기념행사가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3일간 대학원소강당에서 열렸다.

이기간동안 대학원로비에서는 독일종물사진전과 포스터전시회가 열렸으며 12일(목)오후 6시부터는 한국대학과 독일대학의 비교에 관한 주제발표회가 있었다.

13일(금) 1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공연된 연극「괴대학교」에서는 기존교육의 문제점을 조명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합창단「로렐라이」공연과 독어교육과 동문창립총회가 있었으며 연극공연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서양어대 서어과 원어연극 공연

서양어대 서반아어과는 지난 5월6일(금), 7일(토)양일간에 걸쳐 대강당에서 연극「헤밀데」를 공연했다.

스페인작가 알론소 원작「헤밀데」는 스페인내란직후의 좌파와 우파의 이념대립을 두남녀가 사랑으로 초월한다는 내용을 코믹하게 다룬 작품이다.

학살의 원흉

○…광주학살원흉 5적 처단 구국결사대 3명의 민주흉산이 박×병처단을 위해 충북옥천 민정당사를 점거했는데, 이날 각 언론들의 자세는 신중 (?) 하기 그지없어.

불타는 애국정신에 넋이 나갔는지 아니면, 눈치밥을 먹고 체했는지 아무말도못한채 침묵으로 일관하는가하면, 모신문은 「외대생을 자처하는20대의괴청년 3명…」으로 허튼 소리를 하고 있어 다시한번 제도언론의 곡필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자칭 「황색기자」이기를 서슴치 않는이여! 광주학살의 원흉은 관제언론인 모두도 포함하고 있다는 당연지사를 각인해야 할 터.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자랑스런 한겨레 민족의 자존심이 일부 고위관리 매국족들에 의해 계속 꺾이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쌍팔년에 접어들어 코쟁이들의 수입개방압력에 쇠고기·농산물·양담배등등 「메누」만 부르면 시장문열기에 급급한 나리들때문에 아시아에서 코쟁이 압력에 굴복한 나라는 오직 코리아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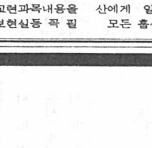
미국 군대까지수입(?) 해놓고「주둔비」까지 두둑히 인상해 주는 나라이고 보면, 코쟁이 말잘듣는「선행상」은 따논 당상.

○…미군양키용병 기초훈련을 대학생뿐만아닌 고등학생까지 하겠다는 고위관리층의 욕심 (?) 이 계획중에 있다고.

세계교육의 본 (本) 과목인 고등학교 교련과목내용을 북한실상, 안보현실등 꼭 필요한 (?) 정신교육만 남기고 실기 훈련위주로 전면 바꿀 것이라는게 계획의 주요골자.

양키용병의 첫걸음을 반전반핵의 기초훈련으로 삼아, 내집 맡쳐놓은셔 다른 집 지켜주는 우매한 민초는 안되어야 할 사 (事) 。

○…민주·통일의 열기가 가득한 광산골 맑은물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다니는 미꾸라지가 있다고 한 흡산 고소를 해와.



사연인즉, 민주흡산들이에써 써붙인 「노태우처단」「군부독재타도」등의 스티커를 일부러 훼손시키고 다니는 괴 (?) 청년이 있다고 이를 분개한 한 흡산, 흥분의 경고 대자보를붙여 전 흡산에게 알렸던것。

모든 흡산이 대동단결해도 이땅의 모순혁결이 힘들판에…미꾸라지흡산은 하루빨리 각성하고 민주흡산대열에 동참할것을 크로니클자 충계권고하는 바이오。

○…교통문제에 관한한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내, 「교직원님들 길들이기」 묘책을 강구해야 할판이라는 흡산들의 의견이 분분。

사연인즉, 학생처가 광주묘역 참배를 위한 교통편을 마련해주겠노라고 호헌장담 하더니만 결국 4시간의 지연끝에 수송협회의 버스가 오는 등 고의성 짙은 실수가 연발되었던것。

학교당국, 성질급한 흡산들의 「김삐기 작전」인지는 몰라도 경건하게 행해야할의식마저 방해하다간 「이성을 잃어버린」흡산들에게 곤코다친다는것 명심하시 압。

고의적(?) 실수

한올의 실에서 첨단 반도체까지-韓一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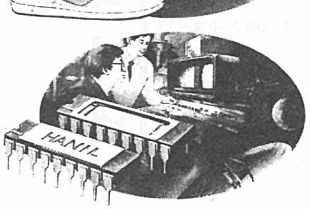
작은 뜻을 모아 큰 일을 이루는 한일그룹의 기업정신이 산업전반에 걸쳐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읍니다.

섬유·화학을 통해 생활을 풍요롭게

세계 최대규모의 다단생산 섬유라인, 우수한 노동체제에서, 한일합섬, 국제적 섬유메이커 입지를 세계속에 심을한국은 섬유 한일 다이월단면사, 직물섬유 등을 개발해 화학섬유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 한일 다음 전자 섬유, 고분자제로·생명화학분야에서, 식품 섬유, 봉유로 생활을 향상시켜 있읍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해 생활을 건강하게

스포츠제품과학연구센터를 중심, 골프채전·수제개발 노에 전복한민한 성과를 거두고 있읍니다. 한일 다음 한국의 상표 프로스포츠 스포츠과학을 선전,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조해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여천·리센시 제주의 부산, 노도, 신도리조트 등의 휴양시설과 레저설비를 갖추고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첨단 전자기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연구개발 R&D 센터 설립을 통해 21세기 기술집약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있읍니다. 한일 다음 기술집약산업체제를 분야에 참여하여 국방화를 세워 기여하고 있읍니다. 한일 다음은 국제적으로 초고기술단계에 있읍니다. 컴퓨터 G.A.A. 반도체 생산 등 생산을 주력, 고도 정보화시대를 가늠한 편리한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읍니다.

韓一그룹

• 한일합섬 • 국제상사 • 경남모직 • 동서석유화학 • 부국증권 • 하얏트리젠시-제주 • 하얏트리젠시-부산 • 진해화학 • 통도컨트리 • 한효건설 • 한효개발 • 연합물산

민족형식에 민족혼을 담은 노래

문화시론

조 용 호

〈민요연구회 회원〉

Ⅰ. 민요의 의미

『엄경퀴야 엄경퀴야 철원평야 엄경퀴야/난리통에 서방 잃고 홀로 사는 엄경퀴야/갈퀴손에 호미잡고 머리위엔 수건쓰고/콩밭머리 주저 앉아 부르나니 님의 이름/엄경퀴야 엄경퀴야 한탄강변 엄경퀴야/나를 두고 어딜 갔어 쑥국소리목이 메네』

창작민요 「엄경퀴야」의 가사다.

분단으로 생이별의 아픔을 견디어 내야 하는 한 아낙의 그리움이 아프게 묘사된 내용이다。소위 「민요부흥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여기서 간단한 생각거리 하나를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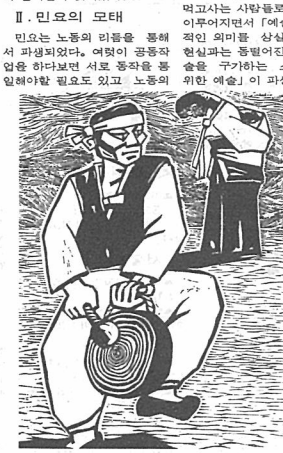
과연 이 가사를 어떤 형식의 음률에 실었을 때 가장 호소력 있는 아픔으로 표현될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고고리듬이나 디스코가 어울릴까, 아니 [illegible]용한 록큰롤 주의 애상[illegible]음률이 어울릴까? 이도 다시라면 뽕짝의 분위기는 어떨지。

우리가 별 생각없이 언뜻 생각해낼 수 있는 선택지는 아마도 이것이 전부일지 모른다。고고나 디스코는 아무리 우리들이 지금 겨우 남아 민요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본시 민요는 이와는 전혀 다른 건강한 노동문화에서 출발한 힘차고 서정적인 가사와 형식들의 것이었다。

Ⅱ. 민요의 모태

민요는 노동의 리듬을 통해서 파생되었다。여럿이 공동작업을 하다보면 서로 동작을 통일해야할 필요도 있고 노동의 고통을 줄여보려는 의도도 가세되었다。그래서 「영차영차」하는 식의 단순한 구호성 외침에서 차츰 리듬감도 덧붙여지고 가락도 생겨났다는 것이다。이렇듯 민요를 포함한 민중예술이라는 것은 관념적 유희의 성격이기 보다는 살아가고 먹고 살기위한 「생산」의 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원시공동체 사회가 무너지면서 (하는 자와 이들의 생산물을 힘과 소유권으로 통제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먹고사는 사람들로 계급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술」의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천상의 예술을 구가하는 소위 「예술을 위한 예술」이 파생되었다。



▲신간소개 배회, 그리고여러사건들 맞게 민요정신을 되간으로 [illegible] 농경공동체사회의 리듬을 [illegible] 보여주는 [illegible]

Ⅲ. 외세에 굴곡당한 민족형식

이러한 훌륭한 민요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를 체험하면서 그들의 악랄한 민족성 압살정책으로 비틀리고 찢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는 정신없이 밀려 들어온 양키문화에 휘말려 우리의 민요는 형체도없이 사라져가고 뽕짝과 서구리듬들이 우리의 외식을 마취시켜나갔다。

현금의 「민요부흥운동」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 의외를 갖고 80년초에 태동되었다。이운동은 진정한 외미에서 전통민요를 오늘에 그대로 되살리자는 운동이라기 보다는 「민요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형식을 찾아가자는 문화운동의 일부분으로 파악할수있다。

예전 농경공동체사회의 리듬이 깨어지고 산업사회의 각박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서를 민요정신을 근간으로 빚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양상우 시인의 시에다 민요연구회 회원이 농악의 상쇄장단을 이용하여 곡을 붙인 것이다。이밖에도 초두에 언급한 「엄경퀴꽃」이나 80년 광주를 그린 「광주천」「남도의비」등 많은 창작민요가 쏟아져 나와 큰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처럼 초기의 창작민요는 소위 민요풍의 시에다 곡을 붙이는 정도에서 시작되었다。이런류의 개인 창작품 성격의 창작민요도 대중들 속에서 호응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될 것은 사장되고 또한 어느것은 생명력을 지니기도 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는 전통민요의 성격과 유사한 측면이기도하다。

노래에 있어서 그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대중들속에 잠재적으로 내재해있는 민족형식을 일깨워줌으로써 그들이 이를 축상아서 내용을 창출해내게 하는것이다。실제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유행가에 가사를 바꾸어서 그들 삶의 애환을 담아내는 경우도 많이있다。

우리의 노래는 민요정신을 근간으로 서야만 한다。「창작민요」의 개념은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다。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고민이 집중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있는 이물질 같은 「남의 정서」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우리 록소리를 우리의 정서로 담아낼수 있어야 한다。이는 우리가 수행해나가는 싸움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노동의 리듬을 통해 파생된 민요는 풍자성, 해학성, 집단성을 담보

노래에 있어서 형식과 통일을 보장 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은 대중에 내재해 있는 민족형식을 일깨워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창출할때 가능

가 외세의 비빔밥 문화에 깊이 마취당해 있다해도 이런 류의 가사를 실어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있다。하지만 통키타 반주 정도는 한 번 시도해볼만 하다고 많은 사람이 수긍할지도 모른다。그러나 어쩐지 이것도 유행해 보이고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나 난리통에 혼자된 아낙네의 아픔을 담아내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뽕짝 가락에 실자니 분단이란 주제의 깊이를 형상화 시켜내기에는 너무 퇴폐적인 느낌이다。

우리는 이상의 간단한 고민거리에서 내용과 형식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미묘하고 중요한 요소인가를 알 수 있다。또한 우리의 민족정서를 일관되게 관철시킬수 있는 형식이 없음을 알고 새삼스럽게 놀랍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에게 민족형식이 없었던 건 아니다。적어도 구한말 이전만해도 민족형식으로 일관된 대중가요가 있었다。그것이 바로다난 민요다。일제시대 기성방에서나 불려지던 것는 현장에서 삶의 절곡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있다。

고대의 동굴벽화가 중요로운 생산을 위한 주술적인 의미에서 기능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상하기에 그리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니다。

사냥하고자하는 짐승을 벽에 그려넣음으로서 보다 쉽게 그 짐승을 사냥할 수 있다는 원시적인 믿음이 작용했던 것이다。이처럼 소위 「예술」이라는 것의 기원은 그 자체의 완결된 논리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구체적인 한 구성원의 애환이라는 것은 대개는 충분한 공감을 누리는 내용들이었다。왜냐하면 그 애환을 아기시키는 절곡이라는것이 그공동체 공통의 것이었기 때문이다。설사 아주 특수한 한개인의 신세타령이었다 하더라도 이런것은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못한다면 구전될수도 없고 생명력도 가질수없어서 민요의 반열에서사라질수밖에없었다。이렇듯, 민요의 내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시대상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성과 사회성을 담보하는 노래의 특성을 가지고있다。이는 또한 지금처럼 어느 한 사람의 창작물이라보기는 여러사람의 입을 건너다니면서 첨삭이 이루어짐으로써 뛰어난 풍자와 해학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앞 산의 딱따구리는 참나무 구멍도 뚫는데, 우리집의 멍텅구리는 있는 구멍도 못찾네』식의 질퍼한 해학도 있는가 하면 『말께나하는 놈 공동산 가고요, 일께나 하는 놈 부역을 간다』식의 한맺힌 풍자도 있다。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굳이 더이상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민요가 가졌던 유희해 보면 그 예들은 지천으로 깔려 있다。시인 김지하에서는 「해학」이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소재로 하는 일종의 비꼬대적인 모순관계에 대한 표현수단이고 「풍자」란 직대적인 관계의 모순을 비판하는 수단이었다(「풍자냐 자살이냐」중에서) 고 말하기도 한다。

일하는 과정에서 몸에 배인 노래가 휴식의 공간에 나와서도 다음 생산을위한 흥겨운 유희요의 성격으로 발전되면서일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의 건강한 노래문화로 발전된 것이다。그러나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봉건 지배층의 노래는 그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형식과 내용이 고도로 복잡해진 일부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술형식으로 발전해간것이다。

이에 반해서 구한말 이전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민중들의노래는 당연히 민요였다。민요는 지배층의 노래와는 달리 그 내용에서는 역사성, 사회성, 풍자성, 해학성, 집단성, 현장성을 담보하고 형식면에서는 개방구조와 반복성을 매개로 하면서 자신들의 한정 (恨情)을 적나라한 풍자와 해학속에 담아냈다。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구체적인 한 구성원의 애환이라는 것은 대개는 충분한 공감을 누리는 내용들이었다。왜냐하면 그 애환을 아기시키는 절곡이라는것이 그공동체 공통의 것이었기 때문이다。설사 아주 특수한 한개인의 신세타령이었

▲신간소개

배회, 그리고여러사건들

—르·클레지오 지음
—윤경식 옮김

이책은 나열법과 문자, 음의 조작법들을 사용하는 클라쥬기법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의 인간소외를 다루고 있는 르 클레지오의 단편집이다。

매카니즘에 매도된 현대인의 삶의 파편화를 공장노동자, 단순노동자, 매춘부등의 생활을 통해 다루고 있으며, 그외초기 작품인 중편 「열병」이 첨가 되 있다。

<한불문화출판펴낼값3천원>

탈 구조주의의 이해

—김성곤 편역

문학이론의 탈구조주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인 이책은 대학원 세미나에서 연구된 결과를 모은 것이다。

탈구조주의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좌표, 탈구조주의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다루면서, 현대문학이론에 있어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 시대정신등이 1960년대 후반부터 지배적인 지적·문화적 사조임을 설명하고 있다。

<민음사펴낼 값5천원>

끝내지 못한마지막교육

—유상덕 외 지음

이책은 민중교육지와 민교투사건으로 구속된 교사와 해직교사가 가족들과 주고 받은 편지글을 모아 엮었다。

교단에서 교육현장의 비리와 부패한 교육관행을 비판하고 민주 교육을 실현하려는것 조차 억압받는 이땅 교육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사펴낼값2천8백원>

역정(歷程)

—이영희지음

70년대 「전환시대의 논리」로 학생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이영희교수 (한양대·신방과)의 파란 곡절한 청년시대를 그려낸 일종의 자전적 에세이다。

8·15해방을 맞아 대학에 입학하고, 여수·순천반란 사건을 목도한 저자가 6·25의 동족상잔 참화속에서 틀려장교를 하며 느낀 소감을 쓴 이야기들은 우리민족 전체가 겪은 고난의 상흔으로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참작과 비평사 펴낼 값3천8백원>

철학과현실

—철학문화연구소엮음

서광선, 금장태등 중견 철학자들로부터 30대의 소장철학자들까지의 목소리가 실린 이책은 한국철학의 제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분석한 부정기간행물 1호이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활을 만들어내는 사상의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토아래 첫번째로 발간한책이다。

<철학과 현실사펴낼 값3천8백원>

문화단신

제1회 청년영화학교

—청년영화학교 주최

제1회 청년영화학교가 5월14일(토)부터 7월9일(토)에 걸쳐 그림마당「민」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한국영화의 평가작업과함께 영화운동의 반성과 전망을 위한 이론과 실천, 장르에 관한 강연이 실시된다。

▲문의및 접수처 : 각대학 영화써클, 그림마당「민」363—9867▲수강시간 : 매주 토요일 7시~10시

문예산책

양철북을 두드리는 시대에 서서

▲영화 「양철북」을 보고—

신 경 은
〈서양·불어 2〉

2차대전의 패전후 서독은 경제적인 복구와 번영을 빠른 시일안에 성공시켰지만, 서구적 민주주의 주입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된 미국 문화의 홍수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무력하기 이를데 없었다。특히 영화문화에서의 심각함은 대단한 것이었다。마치 B—29의 융단 폭격을 연상시키는 미국 영화의 무제한적 배급은 공포스럽기까지 했다。이에 대함한 일단의 젊은 영화 작가들은 낮은 제작비와 가장 독일적인 테마를 무기로 싸워 나갔다。

뉴 저먼 시네마(New German Cinema)로 불리는 이 싸움에서 영화 「양철북」은 하나의 승리로 기록될수 있다。

영화 「양철북」의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1899년 활량한 법판위에서 안나 브론스키 (오스카의 할머니) 와 요셉 (오스카의 할아버지)의 극적인 만남은 오스카의 어머니인 아그네스를 낳게된다。3살되던해 오스카는 어머니에게서 양철북을 선물받고, 어머니와 그녀의 사촌 얀과의 불륜을 목격한 오스카는 이 타락한 기성세대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성장을 멈추기 위해 계단에서 뛰어내린다。이때부터 오스카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양철북을 빼앗으려하던 위르겐의 얼굴에 양철북을 내리찍어 그를 실명시킨다。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간호사 마리아와 사랑에 빠진다。

독일의 어두운 역사하에서 자신의 분신인 양철북을 통해 자아 발견을 시도

동시에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된다。2차대전의 혼란속에서 나찌의 광신자였던 마찌라트는 아시아계 소련병사에 의해 살해되고 안도 죽음을 맞는다。이제 오스카는 마리아와 그에게 아들일수도 동생일수도 있는 마리아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간다。

이 영화는 이상의 피상적 줄거리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어머니의 근친상간적 불륜과 어버지의 광기어린 나찌즘은 타락한 독일의 모습이며 이 속에 있어서도 놀라운 것이다。단적인 예로 아그네스와 얀이 정사행위를 벌이고 있을때 높은 탑속에서 오스카는 양철북을 두드리며 비명을 지른다。전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북을 두드리는 처절한 반항의 모습을 영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나찌즘의 도래를 표현하는데도 피아노위의 베토벤초상이 히틀러의 그것으로 바뀌는 영상적인 표현을 하고있다。나찌당의 군중집회에서 양철북을두드려 왈츠를 연주하게하는 희극적 표현 역시 높이살 만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여지는 오스카의 양철북은 그의 유아적 분신이며 반항의 무기로 분석할수 있다。

한마디로 영화 「양철북」은 가장 독일적인 시각으로 독일적인 테마를 다룬 영화다。

우리영화에서 진실한 우리의 사회와 역사의 모습이 보여지는 날은 언제가될지, 밀려오는 미국영화수입 개방의 현실에서 이 무섭도록 정직한 독일 영화가 더욱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우리말의 쓰임새 (140) 고름다

<부자간의 고름지 못한 이 분쟁이 발생하길。김유정의 단편소설 「형」중에서>

고름다란 피름다, 고생스럽다는 뜻으로 고름다에서「고」자는 한자어로서 결국 한자+한글이 된 셈이다。

고름다와 뜻이 같은 것은 없다。

고통고통하다는 고만고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로롱 고로롱은 그냥 쓰일때는 고통고통을 가리키지만 「고로롱 고로롱하다」고 말할때는 고통고통하다와 뜻이 같다。

유학정보세미나

미국·호주·일본을 중심으로한 유학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내 용 :
   ○유학절차
   ○희망국 대학실정 및 학교선정
   ○국내전공 및 취득학점의 인정범위
   ○편·입학 허가절차 및 조건
   ○현지에서의 학비조달
   ○유학생활의 제문제와 생활적응
   ○장학금 획득방법
2. 일 시 : 1988년5월20일(금) 15 : 00—17 : 00(7—8교시)
3. 장 소 : 서울캠퍼스 본관 108호실
4. 담당교수 : 박 기덕교수(사범대학, 유학상담교수)
5. 실시방법 : 강의, 질의응답, 토의, 자료제공
6. 기 타 : 「해외문화교육정보센터」(Green Tree)등 유관기관에서 자료제공

한 국 외 국 어 대 학 교
학 생 생 활 연 구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1. 모집 전공 분야 : ①석사학위과정 OO명 ②상담교육 ③정치경제상담교육
2. 시 험 과 목 : ①필답시험 ②면접
3. 시 험 일 시 : 1988년6월25일(토) 오후2시
4. 지원서교부및접수 : 1988년6월1일(수)~6월20일(월)
   장소 : 대학교 수업료 40만원 학비면함 ※장학금 없음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기타 상세한 것은 해당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주소 : 취경전공전 (130-791 서울대문구 이문동 270)

교육대학원(야간)

1. 모집 과 정 : 석사학위과정 OO명
2. 모집 인원 : 사학위과정 각과 OO명
3. 시 험 과 목 : ①교육학 ②교육사 ③교육심리 ④교육과정 ⑤교육행정 ⑥교육과정 ⑦교육사 ⑧교육심리 ⑨교육행정 ⑩교육과정 ⑪교육사 ⑫교육심리 ⑬교육행정 ⑭교육과정 ⑮교육사 ⑯교육심리 ⑰교육행정 ⑱교육과정 ⑲교육사 ⑳교육심리 ㉑교육행정 ㉒교육과정 ㉓교육사 ㉔교육심리 ㉕교육행정 ㉖교육과정 ㉗교육사 ㉘교육심리 ㉙교육행정 ㉚교육과정 ㉛교육사 ㉜교육심리 ㉝교육행정 ㉞교육과정 ㉟교육사 ㊱교육심리 ㊲교육행정 ㊳교육과정 ㊴교육사 ㊵교육심리 ㊶교육행정 ㊷교육과정 ㊸교육사 ㊹교육심리 ㊺교육행정 ㊻교육과정 ㊼교육사 ㊽교육심리 ㊾교육행정 ㊿교육과정 (1)교육사 (2)교육심리 (3)교육행정 (4)교육과정 (5)교육사 (6)교육심리 (7)교육행정 (8)교육과정 (9)교육사 (10)교육심리 (11)교육행정 (12)교육과정 (13)교육사 (14)교육심리 (15)교육행정 (16)교육과정 (17)교육사 (18)교육심리 (19)교육행정 (20)교육과정 (21)교육사 (22)교육심리 (23)교육행정 (24)교육과정 (25)교육사 (26)교육심리 (27)교육행정 (28)교육과정 (29)교육사 (30)교육심리 (31)교육행정 (32)교육과정 (33)교육사 (34)교육심리 (35)교육행정 (36)교육과정 (37)교육사 (38)교육심리 (39)교육행정 (40)교육과정 (41)교육사 (42)교육심리 (43)교육행정 (44)교육과정 (45)교육사 (46)교육심리 (47)교육행정 (48)교육과정 (49)교육사 (50)교육심리 (51)교육행정 (52)교육과정 (53)교육사 (54)교육심리 (55)교육행정 (56)교육과정 (57)교육사 (58)교육심리 (59)교육행정 (60)교육과정 (61)교육사 (62)교육심리 (63)교육행정 (64)교육과정 (65)교육사 (66)교육심리 (67)교육행정 (68)교육과정 (69)교육사 (70)교육심리 (71)교육행정 (72)교육과정 (73)교육사 (74)교육심리 (75)교육행정 (76)교육과정 (77)교육사 (78)교육심리 (79)교육행정 (80)교육과정 (81)교육사 (82)교육심리 (83)교육행정 (84)교육과정 (85)교육사 (86)교육심리 (87)교육행정 (88)교육과정 (89)교육사 (90)교육심리 (91)교육행정 (92)교육과정 (93)교육사 (94)교육심리 (95)교육행정 (96)교육과정 (97)교육사 (98)교육심리 (99)교육행정 (100)교육과정 (101)교육사 (102)교육심리 (103)교육행정 (104)교육과정 (105)교육사 (106)교육심리 (107)교육행정 (108)교육과정 (109)교육사 (110)교육심리 (111)교육행정 (112)교육과정 (113)교육사 (114)교육심리 (115)교육행정 (116)교육과정 (117)교육사 (118)교육심리 (119)교육행정 (120)교육과정 (121)교육사 (122)교육심리 (123)교육행정 (124)교육과정 (125)교육사 (126)교육심리 (127)교육행정 (128)교육과정 (129)교육사 (130)교육심리 (131)교육행정 (132)교육과정 (133)교육사 (134)교육심리 (135)교육행정 (136)교육과정 (137)교육사 (138)교육심리 (139)교육행정 (140)교육과정 (141)교육사 (142)교육심리 (143)교육행정 (144)교육과정 (145)교육사 (146)교육심리 (147)교육행정 (148)교육과정 (149)교육사 (150)교육심리 (151)교육행정 (152)교육과정 (153)교육사 (154)교육심리 (155)교육행정 (156)교육과정 (157)교육사 (158)교육심리 (159)교육행정 (160)교육과정 (161)교육사 (162)교육심리 (163)교육행정 (164)교육과정 (165)교육사 (166)교육심리 (167)교육행정 (168)교육과정 (169)교육사 (170)교육심리 (171)교육행정 (172)교육과정 (173)교육사 (174)교육심리 (175)교육행정 (176)교육과정 (177)교육사 (178)교육심리 (179)교육행정 (180)교육과정 (181)교육사 (182)교육심리 (183)교육행정 (184)교육과정 (185)교육사 (186)교육심리 (187)교육행정 (188)교육과정 (189)교육사 (190)교육심리 (191)교육행정 (192)교육과정 (193)교육사 (194)교육심리 (195)교육행정 (196)교육과정 (197)교육사 (198)교육심리 (199)교육행정 (200)교육과정 (201)교육사 (202)교육심리 (203)교육행정 (204)교육과정 (205)교육사 (206)교육심리 (207)교육행정 (208)교육과정 (209)교육사 (210)교육심리 (211)교육행정 (212)교육과정 (213)교육사 (214)교육심리 (215)교육행정 (216)교육과정 (217)교육사 (218)교육심리 (219)교육행정 (220)교육과정 (221)교육사 (222)교육심리 (223)교육행정 (224)교육과정 (225)교육사 (226)교육심리 (227)교육행정 (228)교육과정 (229)교육사 (230)교육심리 (231)교육행정 (232)교육과정 (233)교육사 (234)교육심리 (235)교육행정 (236)교육과정 (237)교육사 (238)교육심리 (239)교육행정 (240)교육과정 (241)교육사 (242)교육심리 (243)교육행정 (244)교육과정 (245)교육사 (246)교육심리 (247)교육행정 (248)교육과정 (249)교육사 (250)교육심리 (251)교육행정 (252)교육과정 (253)교육사 (254)교육심리 (255)교육행정 (256)교육과정 (257)교육사 (258)교육심리 (259)교육행정 (260)교육과정 (261)교육사 (262)교육심리 (263)교육행정 (264)교육과정 (265)교육사 (266)교육심리 (267)교육행정 (268)교육과정 (269)교육사 (270)교육심리 (271)교육행정 (272)교육과정 (273)교육사 (274)교육심리 (275)교육행정 (276)교육과정 (277)교육사 (278)교육심리 (279)교육행정 (280)교육과정 (281)교육사 (282)교육심리 (283)교육행정 (284)교육과정 (285)교육사 (286)교육심리 (287)교육행정 (288)교육과정 (289)교육사 (290)교육심리 (291)교육행정 (292)교육과정 (293)교육사 (294)교육심리 (295)교육행정 (296)교육과정 (297)교육사 (298)교육심리 (299)교육행정 (300)교육과정 (301)교육사 (302)교육심리 (303)교육행정 (304)교육과정 (305)교육사 (306)교육심리 (307)교육행정 (308)교육과정 (309)교육사 (310)교육심리 (311)교육행정 (312)교육과정 (313)교육사 (314)교육심리 (315)교육행정 (316)교육과정 (317)교육사 (318)교육심리 (319)교육행정 (320)교육과정 (321)교육사 (322)교육심리 (323)교육행정 (324)교육과정 (325)교육사 (326)교육심리 (327)교육행정 (328)교육과정 (329)교육사 (330)교육심리 (331)교육행정 (332)교육과정 (333)교육사 (334)교육심리 (335)교육행정 (336)교육과정 (337)교육사 (338)교육심리 (339)교육행정 (340)교육과정 (341)교육사 (342)교육심리 (343)교육행정 (344)교육과정 (345)교육사 (346)교육심리 (347)교육행정 (348)교육과정 (349)교육사 (350)교육심리 (351)교육행정 (352)교육과정 (353)교육사 (354)교육심리 (355)교육행정 (356)교육과정 (357)교육사 (358)교육심리 (359)교육행정 (360)교육과정 (361)교육사 (362)교육심리 (363)교육행정 (364)교육과정 (365)교육사 (366)교육심리 (367)교육행정 (368)교육과정 (369)교육사 (370)교육심리 (371)교육행정 (372)교육과정 (373)교육사 (374)교육심리 (375)교육행정 (376)교육과정 (377)교육사 (378)교육심리 (379)교육행정 (380)교육과정 (381)교육사 (382)교육심리 (383)교육행정 (384)교육과정 (385)교육사 (386)교육심리 (387)교육행정 (388)교육과정 (389)교육사 (390)교육심리 (391)교육행정 (392)교육과정 (393)교육사 (394)교육심리 (395)교육행정 (396)교육과정 (397)교육사 (398)교육심리 (399)교육행정 (400)교육과정 (401)교육사 (402)교육심리 (403)교육행정 (404)교육과정 (405)교육사 (406)교육심리 (407)교육행정 (408)교육과정 (409)교육사 (410)교육심리 (411)교육행정 (412)교육과정 (413)교육사 (414)교육심리 (415)교육행정 (416)교육과정 (417)교육사 (418)교육심리 (419)교육행정 (420)교육과정 (421)교육사 (422)교육심리 (423)교육행정 (424)교육과정 (425)교육사 (426)교육심리 (427)교육행정 (428)교육과정 (429)교육사 (430)교육심리 (431)교육행정 (432)교육과정 (433)교육사 (434)교육심리 (435)교육행정 (436)교육과정 (437)교육사 (438)교육심리 (439)교육행정 (440)교육과정 (441)교육사 (442)교육심리 (443)교육행정 (444)교육과정 (445)교육사 (446)교육심리 (447)교육행정 (448)교육과정 (449)교육사 (450)교육심리 (451)교육행정 (452)교육과정 (453)교육사 (454)교육심리 (455)교육행정 (456)교육과정 (457)교육사 (458)교육심리 (459)교육행정 (460)교육과정 (461)교육사 (462)교육심리 (463)교육행정 (464)교육과정 (465)교육사 (466)교육심리 (467)교육행정 (468)교육과정 (469)교육사 (470)교육심리 (471)교육행정 (472)교육과정 (473)교육사 (474)교육심리 (475)교육행정 (476)교육과정 (477)교육사 (478)교육심리 (479)교육행정 (480)교육과정 (481)교육사 (482)교육심리 (483)교육행정 (484)교육과정 (485)교육사 (486)교육심리 (487)교육행정 (488)교육과정 (489)교육사 (490)교육심리 (491)교육행정 (492)교육과정 (493)교육사 (494)교육심리 (495)교육행정 (496)교육과정 (497)교육사 (498)교육심리 (499)교육행정 (500)교육과정 (501)교육사 (502)교육심리 (503)교육행정 (504)교육과정 (505)교육사 (506)교육심리 (507)교육행정 (508)교육과정 (509)교육사 (510)교육심리 (511)교육행정 (512)교육과정 (513)교육사 (514)교육심리 (515)교육행정 (516)교육과정 (517)교육사 (518)교육심리 (519)교육행정 (520)교육과정 (521)교육사 (522)교육심리 (523)교육행정 (524)교육과정 (525)교육사 (526)교육심리 (527)교육행정 (528)교육과정 (529)교육사 (530)교육심리 (531)교육행정 (532)교육과정 (533)교육사 (534)교육심리 (535)교육행정 (536)교육과정 (537)교육사 (538)교육심리 (539)교육행정 (540)교육과정 (541)교육사 (542)교육심리 (543)교육행정 (544)교육과정 (545)교육사 (546)교육심리 (547)교육행정 (548)교육과정 (549)교육사 (550)교육심리 (551)교육행정 (552)교육과정 (553)교육사 (554)교육심리 (555)교육행정 (556)교육과정 (557)교육사 (558)교육심리 (559)교육행정 (560)교육과정 (561)교육사 (562)교육심리 (563)교육행정 (564)교육과정 (565)교육사 (566)교육심리 (567)교육행정 (568)교육과정 (569)교육사 (570)교육심리 (571)교육행정 (572)교육과정 (573)교육사 (574)교육심리 (575)교육행정 (576)교육과정 (577)교육사 (578)교육심리 (579)교육행정 (580)교육과정 (581)교육사 (582)교육심리 (583)교육행정 (584)교육과정 (585)교육사 (586)교육심리 (587)교육행정 (588)교육과정 (589)교육사 (590)교육심리 (591)교육행정 (592)교육과정 (593)교육사 (594)교육심리 (595)교육행정 (596)교육과정 (597)교육사 (598)교육심리 (599)교육행정 (600)교육과정 (601)교육사 (602)교육심리 (603)교육행정 (604)교육과정 (605)교육사 (606)교육심리 (607)교육행정 (608)교육과정 (609)교육사 (610)교육심리 (611)교육행정 (612)교육과정 (613)교육사 (614)교육심리 (615)교육행정 (616)교육과정 (617)교육사 (618)교육심리 (619)교육행정 (620)교육과정 (621)교육사 (622)교육심리 (623)교육행정 (624)교육과정 (625)교육사 (626)교육심리 (627)교육행정 (628)교육과정 (629)교육사 (630)교육심리 (631)교육행정 (632)교육과정 (633)교육사 (634)교육심리 (635)교육행정 (636)교육과정 (637)교육사 (638)교육심리 (639)교육행정 (640)교육과정 (641)교육사 (642)교육심리 (643)교육행정 (644)교육과정 (645)교육사 (646)교육심리 (647)교육행정 (648)교육과정 (649)교육사 (650)교육심리 (651)교육행정 (652)교육과정 (653)교육사 (654)교육심리 (655)교육행정 (656)교육과정 (657)교육사 (658)교육심리 (659)교육행정 (660)교육과정 (661)교육사 (662)교육심리 (663)교육행정 (664)교육과정 (665)교육사 (666)교육심리 (667)교육행정 (668)교육과정 (669)교육사 (670)교육심리 (671)교육행정 (672)교육과정 (673)교육사 (674)교육심리 (675)교육행정 (676)교육과정 (677)교육사 (678)교육심리 (679)교육행정 (680)교육과정 (681)교육사 (682)교육심리 (683)교육행정 (684)교육과정 (685)교육사 (686)교육심리 (687)교육행정 (688)교육과정 (689)교육사 (690)교육심리 (691)교육행정 (692)교육과정 (693)교육사 (694)교육심리 (695)교육행정 (696)교육과정 (697)교육사 (698)교육심리 (699)교육행정 (700)교육과정 (701)교육사 (702)교육심리 (703)교육행정 (704)교육과정 (705)교육사 (706)교육심리 (707)교육행정 (708)교육과정 (709)교육사 (710)교육심리 (711)교육행정 (712)교육과정 (713)교육사 (714)교육심리 (715)교육행정 (716)교육과정 (717)교육사 (718)교육심리 (719)교육행정 (720)교육과정 (721)교육사 (722)교육심리 (723)교육행정 (724)교육과정 (725)교육사 (726)교육심리 (727)교육행정 (728)교육과정 (729)교육사 (730)교육심리 (731)교육행정 (732)교육과정 (733)교육사 (734)교육심리 (735)교육행정 (736)교육과정 (737)교육사 (738)교육심리 (739)교육행정 (740)교육과정 (741)교육사 (742)교육심리 (743)교육행정 (744)교육과정 (745)교육사 (746)교육심리 (747)교육행정 (748)교육과정 (749)교육사 (750)교육심리 (751)교육행정 (752)교육과정 (753)교육사 (754)교육심리 (755)교육행정 (756)교육과정 (757)교육사 (758)교육심리 (759)교육행정 (760)교육과정 (761)교육사 (762)교육심리 (763)교육행정 (764)교육과정 (765)교육사 (766)교육심리 (767)교육행정 (768)교육과정 (769)교육사 (770)교육심리 (771)교육행정 (772)교육과정 (773)교육사 (774)교육심리 (775)교육행정 (776)교육과정 (777)교육사 (778)교육심리 (779)교육행정 (780)교육과정 (781)교육사 (782)교육심리 (783)교육행정 (784)교육과정 (785)교육사 (786)교육심리 (787)교육행정 (788)교육과정 (789)교육사 (790)교육심리 (791)교육행정 (792)교육과정 (793)교육사 (794)교육심리 (795)교육행정 (796)교육과정 (797)교육사 (798)교육심리 (799)교육행정 (800)교육과정 (801)교육사 (802)교육심리 (803)교육행정 (804)교육과정 (805)교육사 (806)교육심리 (807)교육행정 (808)교육과정 (809)교육사 (810)교육심리 (811)교육행정 (812)교육과정 (813)교육사 (814)교육심리 (815)교육행정 (816)교육과정 (817)교육사 (818)교육심리 (819)교육행정 (820)교육과정 (821)교육사 (822)교육심리 (823)교육행정 (824)교육과정 (825)교육사 (826)교육심리 (827)교육행정 (828)교육과정 (829)교육사 (830)교육심리 (831)교육행정 (832)교육과정 (833)교육사 (834)교육심리 (835)교육행정 (836)교육과정 (837)교육사 (838)교육심리 (839)교육행정 (840)교육과정 (841)교육사 (842)교육심리 (843)교육행정 (844)교육과정 (845)교육사 (846)교육심리 (847)교육행정 (848)교육과정 (849)교육사 (850)교육심리 (851)교육행정 (852)교육과정 (853)교육사 (854)교육심리 (855)교육행정 (856)교육과정 (857)교육사 (858)교육심리 (859)교육행정 (860)교육과정 (861)교육사 (862)교육심리 (863)교육행정 (864)교육과정 (865)교육사 (866)교육심리 (867)교육행정 (868)교육과정 (869)교육사 (870)교육심리 (871)교육행정 (872)교육과정 (873)교육사 (874)교육심리 (875)교육행정 (876)교육과정 (877)교육사 (878)교육심리 (879)교육행정 (880)교육과정 (881)교육사 (882)교육심리 (883)교육행정 (884)교육과정 (885)교육사 (886)교육심리 (887)교육행정 (888)교육과정 (889)교육사 (890)교육심리 (891)교육행정 (892)교육과정 (893)교육사 (894)교육심리 (895)교육행정 (896)교육과정 (897)교육사 (898)교육심리 (899)교육행정 (900)교육과정 (901)교육사 (902)교육심리 (903)교육행정 (904)교육과정 (905)교육사 (906)교육심리 (907)교육행정 (908)교육과정 (909)교육사 (910)교육심리 (911)교육행정 (912)교육과정 (913)교육사 (914)교육심리 (915)교육행정 (916)교육과정 (917)교육사 (918)교육심리 (919)교육행정 (920)교육과정 (921)교육사 (922)교육심리 (923)교육행정 (924)교육과정 (925)교육사 (926)교육심리 (927)교육행정 (928)교육과정 (929)교육사 (930)교육심리 (931)교육행정 (932)교육과정 (933)교육사 (934)교육심리 (935)교육행정 (936)교육과정 (937)교육사 (938)교육심리 (939)교육행정 (940)교육과정 (941)교육사 (942)교육심리 (943)교육행정 (944)교육과정 (945)교육사 (946)교육심리 (947)교육행정 (948)교육과정 (949)교육사 (950)교육심리 (951)교육행정 (952)교육과정 (953)교육사 (954)교육심리 (955)교육행정 (956)교육과정 (957)교육사 (958)교